

9 772586 800008 62
ISSN 2586-8004

K-eco(2026)-홍보PE-6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6 Summer Vol.65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K-eco

2026 SUMMER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Vol. 65

에코 서베이
여름철 폭우·침수 문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K-eco 아카데미
검으로 승부하는 운동 펜싱의 매력에 빠져들다

존중의 식탁
단단한 신뢰와 협력으로 깨끗한 물을 만드는 사람들



본 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 주는 QR코드를 사용합니다. QR코드를 확인하세요.

우리는
더 맑은 내일을 향해
흐릅니다.

짙어진 초록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쏟아지는 햇살 아래 물길이 쉼 없이 흐릅니다.
갑작스러운 비와 거센 바람에도
누군가는 오늘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달립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계절,
우리는 더 맑은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6 SUMMER / Vol. 65

Theme

청량한 질주

멈추지 않는 움직임으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달리다.



발행처
한국환경공단

발행일
2026년 6월 10일 통권 65호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032-590-4000

제작 대행, 인쇄
경성문화사 02-789-2999

K-eco 웹진 바로 가기
본 매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목소리로 책을 읽어 주는
음성 QR코드를 사용합니다.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인쇄 파트너사에서 FSC® 인증 용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Track #1 자연



02 그린 마인드
맑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06 에코 서베이
여름철 폭우·침수 얼마나 체감하나요?

08 에코 칼럼
극한호우로부터 살아남는 방법

10 인터뷰 1
지금도 충분해, 국제 구호 전문가 한비야



14 인터뷰 2
바다에서 찾은 기후 위기 해결법 남성현 교수

18 K-eco 사용 설명서
한국환경공단의 기둥 네 가지 핵심가치

Track #2 사람



20 K-eco 포커스
신입직원 입문 교육 현장을 방문하다

22 덕후를 찾아서
육해공을 넘나드는 스포츠에서 얻은 힘

26 K-eco 아카데미
검을 맞대는 순간 펜싱 체험기





30 존중의 식탁
공단과 기업이 함께 만드는 깨끗한 수돗물

34 K-eco 지구특파원
프랑스부터 가나까지 국제 파견자의 하루

Track #3 소통



38 그린 테크 리포트
흐린 날도 문제없는 하이브리드 태양광

42 에코 큐레이션
바다와 친해지는 곳 경기해양안전체험관

46 스테이 그린
석탄, 문화가 되다 강원도 태백 여행

50 트렌드 라운지
오늘부터 시작 플렉시테리언 식단

52 에코 플레이리스트
작품으로 만나는 환경 이야기

54 K-eco 와글와글

58 K-eco 이벤트

59 환경 체험지

61 환경사랑공모전

여름철 폭우와 침수, 얼마나 체감하고 있나요?

매년 여름 폭우와 침수가 반복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인명·재산 피해도 커진다. '기록적 폭우' '기습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 사람들이 폭우와 침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로 살폈다.

참여 인원 1053명
설문 기간 4월 17일~5월 17일

정리. 편집실

최근 3년 이내 폭우로 인한 침수 또는 배수 문제를 겪은 적이 있습니까?

32.5% 직접 경험했다

48.2% 주변에서 경험했다

19.3% 없다

여름철 폭우로 경험한 불편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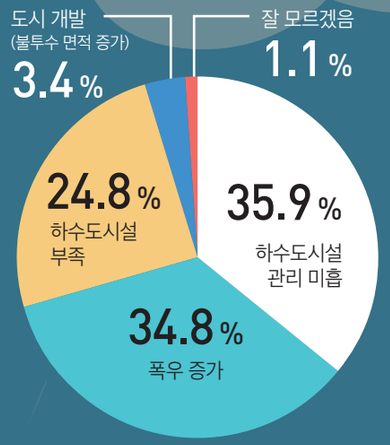
(*복수 응답 가능)

- **도로 침수** 62.2%
- **공사장 및 산비탈면 등 토사 유입** 16.6%
- **하수도 역류** (맨홀, 저지대 가구 역류) 53.9%
- **경험 없음** 5.7%
- **지하공간 침수** (지하철·상가 등) 35%
- **악취 발생** 26.5%





침수·배수 문제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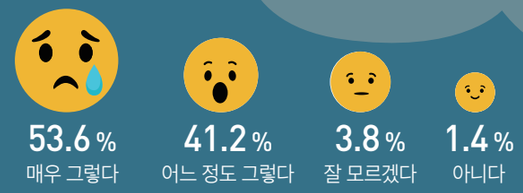
폭우 시 막힘없는 배수 시설(빗물받이)을 만들기 위해 개인이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68.9% 알고 있고 실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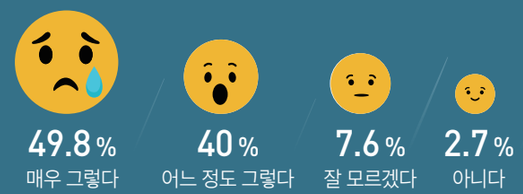
15.2% 알고 있으나 실천 안 함

15.9% 잘 모르겠음

최근 폭우·침수 증가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보다 폭우나 침수 피해가 증가했다고 느끼십니까?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44.3%** 주기적인 하수도 시설 관리
- **32.8%** 하수도 시설 확충
- **10.6%** 기후 대응 정책 강화
- **10.4%** 도시계획 개선
- **1.9%** 개인 실천(빗물받이 쓰레기 투기 방지 등)

여름철 폭우·침수에 대응하는 한국환경공단의 노력

+ 극한호우에 대비하는 하수도 적극 행정

한국환경공단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자 한다. 이는 하수 범람으로 침수가 발생하거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극한호우 시 해당 지역을 최우선으로 관리한다. 침수 방지 예산과 전문 인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여러 정책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 기후·환경 변화 대응형 노후 하수관로 관리 체계

지반이 무너지는 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 취약 지역을 정밀 조사한다. 또, '노후 하수관로 기술지원단'을 꾸려 각 지자체 하수관의 문제를 분석한 뒤 해결 방안까지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하수관 내부 조사와 지반 탐사 등에 나서 파손이나 침하 위험 구간을 점검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관리 대책 기술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중이다.

기후변화가 부른 ‘극한호우’로부터 살아남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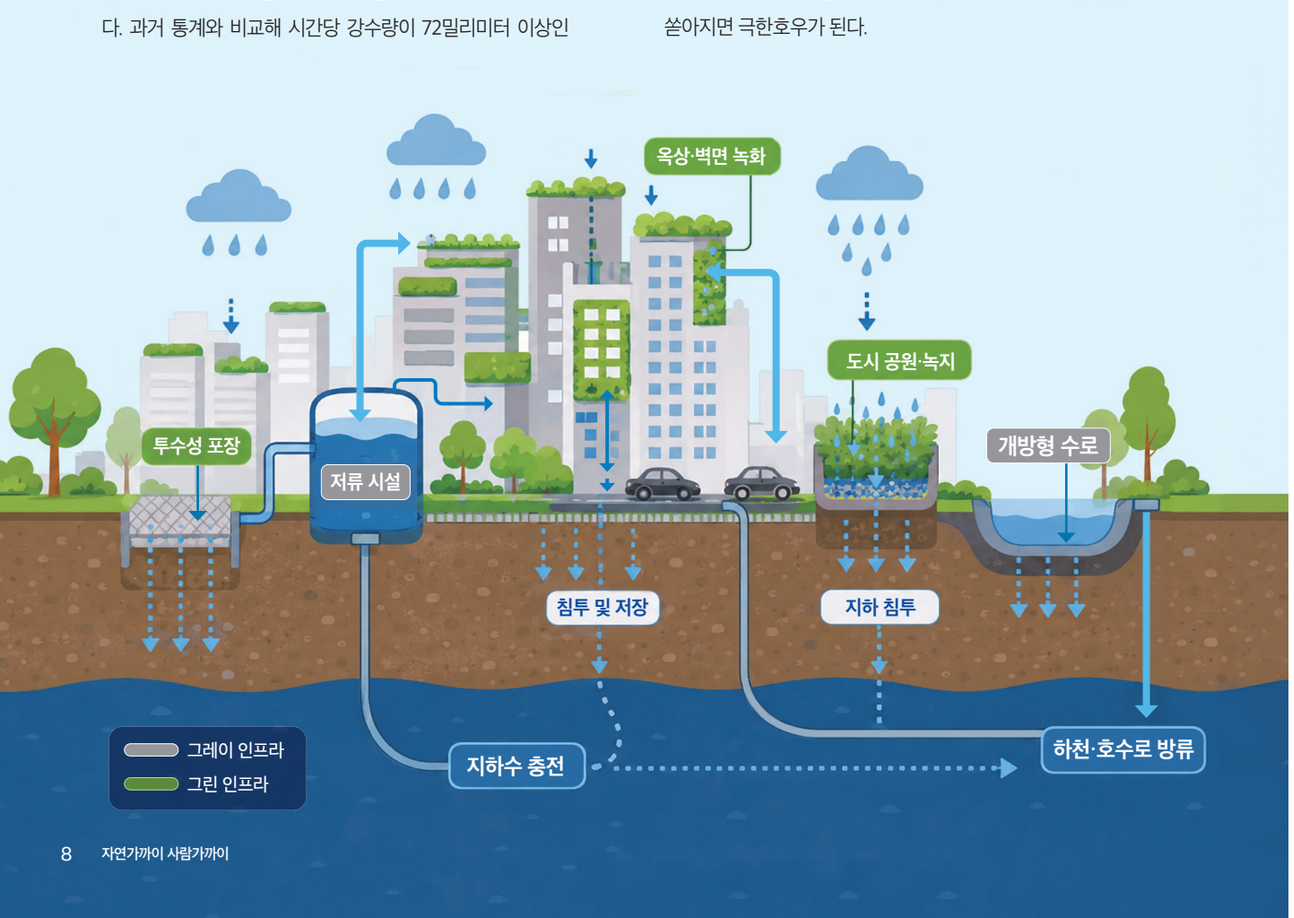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 듯한 극한호우가 계속해서 발생할 전망이다.
폭우·침수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김소연(동아사이언스 기자)

지난해 8월 4일, 전남 무안에는 시간당 140밀리미터를 넘는 비가 내렸다. 하천이 범람해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으며, 논과 밭이 잠겼다. 상가와 민가에도 물이 들어차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2024년 7월 18일 경기도 파주에는 하루 만에 514밀리미터의 비가 내렸다. 앞으로 이런 비는 더 많이, 더 자주 내릴 전망이다.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또는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일 때를 ‘극한호우’라 부른다. 과거 통계와 비교해 시간당 강수량이 72밀리미터 이상인 경우를 ‘10년 빈도의 비’라고 한다. 10년에 한 번 만날 정도로 드물게 많은 비라는 소리다.

그런 비가 2025년은 물론 2024년, 2023년에도 내렸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처럼 증가한다면 2100년엔 시간당 230밀리미터의 비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10년에 한 번 내려야 할 비가 매년 내리는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꼽힌다. 기후변화로 기온이 높아져 공기 중에 더 많은 수증기가 녹아든다. 하늘의 물통 용량이 커진 셈이다. 이 물이 한 번에 쏟아지면 극한호우가 된다.



땅속으로 흘려보내고 녹색 스펀지로 가두고

재앙이 닥칠 테니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발 늦었다. 기후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며, 우리 삶을 할퀴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적응’이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된다. 이제 일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방법을 마련해 뒤바뀐 세상에서 살아남자는 게 골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 12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내놨다. 홍수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댐 10개, 대심도 빗물터널을 6개 새로 건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한다.

빗물저류배수시설이라고도 부르는 대심도 빗물터널은 이름처럼 땅에 고인 물을 지하의 거대한 배수로를 통해 강으로 내보내는 시설이다.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국 최초의 빗물저류배수시설 ‘여월빗물배수시설’은 길이 1.1킬로미터, 지름 4.3미터인 하수 터널과 분당 255톤의 물을 내보내는 오정빗물펌프장으로 구성됐다. 오정빗물펌프장 저류조는 최대 1만 5000톤의 빗물을 저장한다. 빗물저류배수시설이나 댐, 제방과 같은 대규모 콘트리트 시설은 ‘그레이 인프라’라고 부른다. 이웃한 일본도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그레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대표적인 시설이 도쿄 지하에 만든 지하터널이다. 도쿄에는 총 264만 세제곱미터의 빗물을 임시로 저장하는 지하터널 등 조절지를 도내 총 27곳에 건설했다. 일본은 나아가 땅속 터널을 도쿄만까지 연결해 일종의 ‘땅속 하천’을 건설할 계획이다.

독일 베를린은 전혀 다른 전략을 내세웠다. 바로 도시 전체에 녹지를 확충해 녹색 스펀지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도심 녹지 요소를 활용해 홍수를 조절하는 전략을 ‘그린 인프라’라고 한다. 옥상 정원, 투수성 도로포장, 거리 화단 등에 빗물이 자연스레 스며들어 홍수 완충재를 만들었다. 독일 베를린의 포츠담 광장은 그린 인프라의 좋은 예시다. 전체 면적 2만 6444제곱미터인 포츠담 광장에 내리는 비는 모두 그린 인프라에 저장한다. 최대 저장용량은 무려 총 5700세제곱미터에 달한다.

그레이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는 동시에 활용할 때 빛을 발한다. 그레이 인프라의 빗물 처리 능력은 그린 인프라보다 월등하지만, 그레이 인프라와 그린 인프라의 기능이 조금 다르다. 그레이 인프라는 내리는 빗물을 빠르게 내보내는 데 쓰인다.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 그레이 인프라의 처리 용량이 한계에 다다른다. 이때 그린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그레이 인프라로 들어갈 빗물의 일부분을 분담해 처리하면 홍수 걱정이 덜어진다.



독일 베를린 포츠담 광장



도시를 홍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한 지하 배수 시설
일본 사이타마현 G-Cans 프로젝트

홍수를 막을 완벽한 방법은 없다

앞날을 대비해 새로 인프라를 더 짓자는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 그 어떤 인프라로도 시간당 230밀리미터라는 극한호우를 완벽히 막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빗물 처리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비구조적 대책이 중요하다고 짚는다. 극한호우를 예측해 경고함으로써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2022년 서울 신림동에 내린 극한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기억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다른 자연재해처럼 극한호우도 사회 가장자리에 놓인 이를 먼저 노린다. 이를 막기 위해 침수가 발생할 시기에 해당 장소에 있는 대상자에게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침수 경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을 거론하지만, 그레이·그린 인프라와 함께 더욱 정교한 예측·경고 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할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바뀐 날씨, 끊임없는 재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기후적응 시대. 거대한 인프라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치밀한 대응책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도보 여행가, 국제 구호 전문가로 종횡무진 지구를 누비던 한비야는 이제 천천히 걷는 법을 배운다.
그러면서 깨친다.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글. 강은주 **사진.** 정영찬



Q

대학 강단과 현장을 오가며 국제 구호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지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국제 구호를 가르치는 교수로 15년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과 강의를 맡고 있고, 지난해에는 차곡차곡 모아 온 일기와 여행기를 엮어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라는 책을 냈습니다. 최근엔 월드비전 '피니시 더 잡(Finish the Job)' 특임고문이 되어 그동안 마을 단위로 진행한 구호 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어요. 피니시 더 잡은 식수 위생, 기후변화, 빈곤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이른바 '끝장내기 프로젝트'예요. 현재는 아프리카 잠비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식수 및 위생 문제에 집중하는 중입니다. 제가 세 차례 장기 파견 근무를 한 남수단에서는 가축 오물과 기니아충 등으로 오염된 강물을 주민들이 마셔 영아 사망률과 수인성 질환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물 부족 문제는 때때로 유목민과 농민 사이의 생존권 싸움으로 번져 수단의 다르푸르 분쟁 같은 내전의 불씨를 지피기도 합니다. 기후변화가 야기한 물 부족과 위생 문제를 해결해 질병 등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삶을 이끄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해요.

Q

물 부족과 식수 위생 저하가 평화를 위협한다니 안타깝습니다. 근본적 해결책이 있을까요?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되려면 사용이 간단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안한 방법 중 하나는 자갈·굵은 모래·숯·얇은 천을 이용한 간이 정수통과 정수 약품의 보급이에요. 강 유역에 사는 주민에게 특히 주효한 방식이죠. 대형 정수통에 앞사람이 먼저 부어 놓아 정수된 물을 가져가고, 자신의 강물을 채워 두는 순환 방식을 도입해 바쁜 주민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극대화했지요. 국제 구호 기준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물의 최소량은 하루 1인당 7.5리터예요. 아프리카 소외 지역 사람들은 평생 극심한 물 부족을 견디고 살아가야 하지요. 아이들은 물을 긷느라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날마다 같은 길을 오가며 성범죄 위험에 노출됩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3년 단위로 수원 관리와 식수 위생 교육을 진행합니다. 식수는 정수해 쓰고, 빗물 저장 시설 등을 지원해 생활용수를 확보함으로써 1인당 7.5리터의 청결한 물을 공급하려 하고요. 집 근처에 깨끗한 수원이 있다면 수인성 질환이 사라질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교육과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가축, 가정, 마을 전체의 삶이 현저히 나아지는 셈이지요. 그러니 물은 곧 생명이고, 평화의 시작입니다.

음성안내 QR코드





음식 남기지 않기와
남은 음식 사오기는
자연사랑의 작은 실천입니다!

Biya Han

Q

기후변화로 시시각각 달라지는 지구의 모습을 목격하셨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올여름 몽골 방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막화와 혹한으로 생계를 잃은 목축민이 대거 도시로 이주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지요. 가을엔 솔로몬제도를 찾을 계획인데, 이곳은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잠기기 시작한 도서 국가 중 하나예요. 이미 다섯 개 섬이 잠겼고, 바닷물이 역류해 농사를 망친 주민들은 이른바 '기후 난민'이 되어 이웃 섬이나 이웃 나라로 이주하는 실정입니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대륙은 지금 극한의 가뭄과 홍수로 신음하는 중이에요. 최근 1년간 발생한 수해 건수는 지난 10년간 일어난 수해 건수의 총합을 웃돌 만큼 빈도가 잦아졌고 강도 또한 파괴적으로 변했습니다. 기후 재난은 소외 지역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찾아와요. 인류의 존망을 좌우하는 기후변화 앞에서 '속수무책 피해자'로서의 두려움, '간접적 가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Q

새 책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에서 이제는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집'의 시대라고 하셨지요.

세계시민학교 1대 교장으로서 지구집 소식에 늘 귀를 기울여요. 지구가 집이고 80억 인류가 가족이라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를 내 일처럼 알아야겠죠. 그것이 세계시민의 시작입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안보·양극화·인구 폭발·도시화·난민 문제 등은 사실상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의 다른 이름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기후변화는 자원 부족을 일으켜 분쟁을 촉발하거나 가속화하거든요. 예컨대, 산업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방글라데시의 맹그로브 숲을 훼손하자 천연 방파제가 사라진 마을은 잦은 홍수와 태풍에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염수가 유입돼 벼농사를 짓지 못하고 어업이 붕괴되는 등 환경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됐지요.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비극은 사슬처럼 연결되고, 여기엔 환경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계시민으로서 환경 지식을 갖추는 일은 우리 집인 지구와 가족들의 생존을 지키는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Q

깨끗한 물과 흙, 자연을 위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을 소개해 주세요.

작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행하면서 대륙 내 이동을 할 땐 비행기 대신 육로 교통을 이용하고, 대형 프랜차이즈보다 동네 상점에 가서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물티슈,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대신 손수건, 텀블러, 휴대용 젓가락을 지참하는 일상적 실천도 뿌듯함과 보람을 안깁니다. '해 보니 별거 아니네'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지구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자연보호는 '음식 남기지 않기'예요. 먹을 만큼만 주문하고 남은 음식을 포장하면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킨답니다.

Q

'바람의 딸'로 지구를 누비고 예순둘엔 박사 학위를 받으셨죠. 앞으로는 어떤 놀랍고 재미있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교수직과 월드비전 고문 역할을 다하는 3년 뒤엔 남은 시간을 힘닿는 데까지 '옴팡지게' 놀면서 재밌게 보낼 계획입니다. 105개국을 여행하고, 25년간 국제 구호 활동하고, 11권의 책을 쓰면서 화려하진 않아도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으니 사회생활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네덜란드 사람인 남편과 서로의 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오지 여행과 자전거 여행을 즐기며 우리 결의 이웃을 기꺼이 돕고, 생각과 경험을 글로 남기는 삶에 집중하려 해요.
어느덧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제 삶을 향해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Q

'이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말, 환경보호 문제를 꿰뚫는 문장인 듯합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적으로 충분한 세상에 살잖아요. 저는 물건을 잘 안 사요. '살까 말까 망설일 때는 사지 않는다'가 중요한 원칙이죠. 그래서 강연 때마다 거의 같은 옷을 입어요. 국제 구호 현장을 다니는 제게 사치품은 어울리지도 않고, 지금 이대로도 만족스러우니까요. 실은 제게 이 말을 가르쳐 준 아이가 있어요. 남수단의 한 마을, 일곱 살 미만 아이들을 돌보는 월드비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시절 일이에요. 공책과 색연필 세트를 나누어 주는데, 눈빛이 초롱초롱한 한 아이가 자신이 받은 선물을 시각장애인 동생에게 만져 보게 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한 세트를 더 건넸더니 글쎄,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요.





지구의 허파, 바다로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를 읽다



음성안내 QR코드

기후 위기 시대에서 바다는 지구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다. 연구선을 타고 대양을 관측하는 물리해양학자,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남성현 교수에게 해양의 역할에 대해 들었다.

글. 한울 사진. 오충근

Q

‘해양과학’이라는 분야가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해양과학은 지구를 이루는 여러 환경 가운데 바다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물리해양학을 연구합니다. 주로 연구선을 타고 태평양과 인도양 같은 대양 현장에 나가 해양 환경을 직접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뒤, 이를 분석해 해양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온 관측입니다. 특정 위도와 경도, 그리고 수심에서 바닷물 온도를 반복적으로 측정하면 수온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또 어떤 물리적 과정이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Q

어떤 계기로 해양과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바다를 좋아하기도 했고, 자연현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해양과학자를 꿈꿨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 진학해 자연 현상을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과 지구환경 분야에 흥미를 느꼈고, 전공을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해양학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현장 탐사를 다녀오고 나니 제 적성을 더욱 분명히 알겠더군요. 연구선을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가 관측하고 데이터를 얻는 모든 이 과정이 저와 잘 맞았고, 현장 관측 중심의 물리해양학 연구를 전문 분야로 삼게 됐습니다.

Q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대기를 맨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로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데 해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지구에는 막대한 열에너지가 계속 축적되는 중입니다. 증가한 열의 90퍼센트 이상을 바다가 흡수하고요. 바다가 이처럼 많은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닷물이 기본적으로 차갑고,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표면적이 넓고 평균 수심도 깊습니다. 흡수한 열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특성 역시 가졌지요.

문제는 바다가 균일하게 따뜻해지진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해역은 빠르게 가열되고, 어떤 곳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게 변화합니다. 이러한 수온 변화의 차이는 해양 순환 자체를 바꿉니다. 이런 해양 순환의 변화는 전 지구적인 기후 패턴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엘니뇨 현상입니다. 열대 태평양의 바닷물 온도 분포가 조금만 달라져도 전 세계 곳곳에서 폭우와 가뭄, 이상 고온 같은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래 기후를 예측하는 모든 기후 모델에는 반드시 해양을 포함합니다. 앞으로 지구 평균기온이 얼마나 더 상승할지,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해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달렸습니다. 바다를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의 기후 역시 제대로 예측하거나 대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Q

‘지구의 허파는 아마존이 아니라 바다’라고 하셨지요.

바다는 지구에 축적되는 열을 흡수할 뿐 아니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도 상당 부분 빨아들입니다.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은 육상 식물처럼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지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규모로 번성할 때는 그 범위가 한반도보다 훨씬 넓은 해역에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금도 바다 곳곳에서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Q

해양 탐사가 우주 탐사만큼,
혹은 그보다 더 어려운 분야라고 하잖아요.

바다 대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심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마리아나 해구처럼 수심 1만 미터가 넘는 심해는 인류가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손꼽죠. 해양 탐사에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압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받는 압력은 1기압 정도지만, 바닷속은 10미터만 내려가도 압력이 1기압씩 증가합니다. 수백 기압을 견뎌야 하는 수심 수천 미터 지역은 인간과 장비 모두에게 극한의 환경입니다. 게다가 심해는 빛조차 도달하지 않는 완전한 암흑의 공간이며, 온도 역시 매우 낮습니다. 실제로 지구로부터 약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달에 다녀온 사람보다 수심 10킬로미터 아래 바닷속을 탐험한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심해는 지금도, 여전히 인류에게 미지의 영역입니다.

Q

세계 여러 바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기억에 남은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남태평양 솔로몬 제도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작은 섬 인근 해역에서 해양 관측 장비를 설치하던 중이었습니다. 날씨가 맑다가, 멀리서 짙은 구름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거세지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바다가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장비 테스트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작업을 멈출지 계속 진행할지를 현장에서 긴박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결국 위험하다 결론 내리고 모든 작업을 중단한 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탐사 장비를 회수한 후 전속력을 내 항구로 복귀하는데, 폭풍우가 바로 뒤에서 따라붙더라고요. 거센 비바람을 뚫고 가까스로 항구에 도착해 확인해 보니 제가 머문 해역에서 태풍이 형성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어도 매우 위험했을 뻔했죠. 현장 연구에는 늘 긴장감과 예기치 못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Q

오랜 시간 현장 관측 연구를 해 오신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해양학자는 자연의 최전선에서 답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관측이 중요한 이유는 해양 환경이 매 순간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그 순간의 바다를 기록해야 합니다.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탐사대원들과 연구를 이어가는 과정은 일종의 탐험 같습니다. 아무도 가 보지 않은 현장에서 자연을 마주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해양의 모습을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은 제게 큰 희열이자 보람입니다.

> 바다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잠재한 곳입니다. 바다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의 미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Q

연구자이자 교육자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들려주세요.

오랜 기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현재는 교육자로서 관측 해양학 연구를 이을 후학을 양성하는 역할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관측 해양학 전문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에서 보람을 느껴요.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해양학자를 꿈꾸는 연구자를 기르는 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말씀해 주세요.

바다는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해상 교통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바닷길이 막히면 경제와 산업 전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꼭 과학이 아니더라도 바다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바다를 재난과 사고, 위험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바다를 희망과 개척, 미래의 공간으로 여기는 시각이 강하지요. 바다를 보다 미래 지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바다는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잠재한 곳입니다. 바다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 경쟁력도 한층 강화됩니다.

마음에 새기고 일로 실천하는 한국환경공단 핵심가치



한국환경공단이 나아갈 곳을 명확히 제시하는 나침반이자 조직문화의 근간, 네 가지 핵심가치를 소개한다. 신뢰, 전문, 안전, 혁신 네 가지 가치가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으로 도약하는 공단의 기반이다.

정리. 편집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사람의 삶을 지키는 일과 같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을 향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역할 역시 점점 커진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움직이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이 늘 마음에 굳게 아로새기는 네 가지 단어가 있다. 바로 공단의 핵심가치인 신뢰, 전문, 안전, 혁신이다.

핵심가치는 유명무실한 구호가 아니다. 공단이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지, 공단원은 어떤 태도로 일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기준이자 업무 중 반드시 실천해야 할 약속이기도 하다. 한국환경공단은 이 가치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행동규범을 마련하고 일상 속 실천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왔다.



신뢰

한국환경공단이 가장 기본으로 삼는 가치다. 원칙과 윤리를 지키며 고객과 동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청렴한 태도를 갖춘다. 작은 약속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책임 있는 행동이 국민의 믿음으로 이어진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에 임하고, 업무를 투명하게 수행할 때 공단을 향한 신뢰도 더욱 단단해진다.

전문

환경문제 해결의 출발점과 같다. 탄탄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필두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 학습과 경험으로 키운 전문성은 현장과 실무에서 반드시 빛을 발한다. 탄소중립, 환경문제 해결 등 시대적 과제 앞에서 전문성은 공단의 가장 든든한 경쟁력이다.

안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환경·안전·건강에 관련한 정책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 요소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재난과 환경오염에 대비한 매뉴얼을 숙지함으로써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과 일터를 조성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힘은 안전에서부터 나온다.

혁신

공단의 내일을 여는 핵심 동력이다.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고객의 요구를 세심하게 반영하여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한 도전을 지속한다.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업무 효율화를 추구해 발전을 도모한다. 혁신의 축적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다.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을 현실로



한국환경공단은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네 가지 경영방침을 함께 운영한다. 미래경영, 소통경영, 안전경영, 혁신경영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꾀하는 것이다. 급변하는 환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흐름 속에서 미래경영은 지속가능한 환경 서비스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기반 역할을 한다. 또 소통경영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항목으로 열린 마음을 갖추겠다는 포부와 같다. 안전경영은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혁신경영은 기존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기술 혁신에 유연하게 대응해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말한다. 공단은 핵심가치와 경영방침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업무와 조직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신뢰, 전문, 안전, 혁신. 네 가지 가치는 공단이 지향하는 방향이자 임직원 모두가 실천해야 할 기준이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작은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네 가지 가치를 되새길 때 공단은 더욱 신뢰받는 환경전문기관으로 성장한다.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은 단순 비전이 아닌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이다.

새로운 조직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은 언제나 긴장되고 설렌다. 배우고 소통하며 조직의 가치를 체득하는 2026년 상반기 한국환경공단 신입직원 입문 교육 현장에 다녀왔다.

글. 이경희 사진. 김규남



배우고, 뛰며, 함께 성장하는 한국환경공단 신입직원 입문 교육 현장



지난 4월 15일, 본사에서 임용식을 마친 새내기 직원 56명이 충북 제천의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했다. 4월 24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입문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신입직원들은 입교 등록 후 오리엔테이션, 미션 설명, 팀 빌딩 및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등으로 처음 만난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공단 비전을 공유하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애사심을 형성했다.

한국환경공단을 알아가는 시간

교육과정은 크게 법정 교육과 공통 직무 교육, 사업 소개, 기초 소양 교육, 소통·협력 교육 등으로 구성했다. 청렴과 안전, 보안 교육은 물론 조직과 예산, 인사·급여 체계, 회계 업무, MIS 및 전자결재 시스템, 보고서 작성법까지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다뤘다. 특히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업무 상황을 염두에 둔 실습 중심 교육을 병행해 신입직원의 현장 이해도를 높였다. 공단의 핵심 사업을 이해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기후환경본부, 물환경본부, 자원순환본부, 환경시설본부 등 각 부서 담당자가 직접 나서 사업 방향과 역할을 설명했고, 신입직원은 자신이 몸담을 조직이 단순 행정 기관이 아니라 탄소중립, 물관리, 자원순환, 환경안전 등 환경정책의 최전선에서 역할을 도맡는 기관이라는 점을 체감했다.



무엇보다 이번 교육은 '공단인'으로 성장하는 첫 단계를 체계적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단은 입문 교육 이후에도 멘토링, 직무 역량 교육, 심화 교육, 체계적 현장훈련(S-OJT) 경진대회 등을 연계해 단계별 성장관리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단기간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공단의 의지가 엿보인다.





웃음과 함성으로 하나 되는 체육대회

4월 22일은 입문 교육 일정의 하이라이트인 한국환경공단 신입직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다. 제천시 족구장에는 아직 어색함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신입직원들의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체육대회가 시작되자 이내 힘찬 함성과 열기로 뒤덮였다. 이번 체육대회는 여타 운동회와는 다르게 팀워크와 협동, 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팀 빌딩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 총 8개 조로 나뉜 신입직원들은 컬링, 딱지치기, 협동 공 튀기기, 대형 젠가, 에어봉 릴레이, 제기차기, 장막 줄다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수행하며 경쟁과 협동을 동시에 경험했다.

경기가 무르익어가면서 현장은 승리를 위한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으나, 마음이 따스해지는 순간도 많았다. 게임 중간에 누군가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고 여기저기서 격려와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이긴 팀을 향해서는 아낌없는 박수가 터졌다. 결국 최종 우승은 5조에게 돌아갔다. 우승 발표 순간 팀원들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환호했고, 다른 팀 역시 진심 어린 박수로 승리를 축하했다. 행사 마지막, 모두가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입문 교육과 체육대회까지 함께 하며 땀 흘린 그들은 어느새 같은 조직의 동료가 되어 있었다.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응원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앞으로 공단을 이끌어 갈 동료애와 공동체 의식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새내기 직원들. 오늘의 초심이 앞으로도 내내 이어질 것이다.



Mini Interview 고가빈 신입사원

2년이라는 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입사에 성공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지는 직무연수가 쉽지는 않았지만 교육을 통해 진정한 공단인으로 거듭난 기분입니다. 오늘 체육대회는 다리부상으로 부목을 대고 있음에도 꼭 참여하고 싶던 행사였어요. 다행히 동료들이 배려해 줘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 조원들과 더 친해졌고 다른 조원과도 가까워져서 좋았습니다. 업무에 복귀해서도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전문성을 키워 공단에 없어서는 안 될 직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음성안내 QR코드

스포츠는 나의 힘

글로벌협력처 해외사업부 전병연 과장은 육해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스포츠를 즐긴다.
그에게 운동은 삶의 원동력이자 건강한 삶을 가꾸는 방식이다.

글. 한율 사진. 김규남

SPORTS





카이트서핑을 하러 경기도 평택호를 찾은 전병연 과장은 한눈에도 활기가 넘쳐 보였다. 잔잔한 호수에 바람이 스칠 때마다 수면에는 잔물결이 끊임없이 번졌다. 그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세심하게 살폈다. "바람이 잘 불어 줘야 할 텐데요." 기대 어린 표정으로 말을 꺼낸 그는 곧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비를 하나씩 챙기고 점검하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과 푸른 물결이 어우러진 평택호의 풍경은 라이딩을 앞둔 현장에 생동감을 한층 더했다.



바람 속에서 찾은 자유

카이트서핑은 바람의 힘만으로 수면을 가르는 대표적인 친환경 스포츠다. 엔진이나 별도의 동력 없이 오직 자연의 바람과 타는 이의 균형 감각만으로 즐기는 만큼, 순간적으로 변하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읽는 감각이 중요하다. 전병연 과장은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카이트서핑의 가장 큰 매력"이라며 웃었다. "처음 카이트서핑을 알게 된 건 2015년, 튀니지 사업으로 현지에 두 달 동안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당시 카이트서핑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언젠가 꼭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뒤인 2017년, 콜롬비아 프로젝트를 가서 처음 카이트서핑에 도전했습니다. 성게 가시에 발바닥이 찔리고 바닷물도 마셔 가며 수없이 넘어졌지만, 마침내 3미터 정도 첫 라이딩에 성공한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카이트서핑은 연, 즉 카이트와 수면의 보드를 동시에 제어해야 하는 고난도 스포츠다. 전병연 과장은 배우는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라이딩에 성공한 성취감이 크다고 설명한다. 특히 바람만으로 수면을 가르고 나아가는 순간의 해방감과 속도감은 다른 스포츠에서는 쉽게 느끼기 어려운 특별한 묘미라고 덧붙였다. "제주도 성산 앞바다에서 고립된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거친 파도 속에서 보드와 카이트를 모두 놓친 채 한동안 바다 위를 떠다녔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바람을 기다렸고, 결국 다시 바람의 흐름을 읽어 카이트를 띄우고 육지에 닿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라본 일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비결은 꾸준함

전병연 과장은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스포츠 마니아다. 수영을 시작으로 승마, 카이트서핑, 헬스, 윙 카이트, 서핑, 실내 서핑, 웨이크보드, 케이블파크, 카버보드, 외발자전거, 스쿠버다이빙, 프리다이빙, 사이클링, 스키 등 그야말로 육해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스포츠를 취미로 두었다. 이뿐 아니라 살사, 바차타, 탱고 등의 댄스도 섭렵해 활기찬 취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되고 나서 뭔가에 도전하고 성취하는 모습을 아내와 딸들에게 보여 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상급자 수준에는 도달하더라고요. 운동은 흘린 땀만큼 결과로 돌아오니 뿌듯하지요." 특히 딸아이의 학교 행사를 위해 배운 외발자전거는 전병연 과장의 도전 정신을 잘 드러내는 취미다. "보호자 초청 수업 때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싶어 새벽마다 한 시간씩 연습했고, 일주일 만에 기본 라이딩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는데 꾸준한 연습으로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딸들이 부끄러워해 실제로 타고 등장하지는 못했지만,





외발자전거로 '불가능은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동안은 약 7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의 사무실까지 외발자전거로 출퇴근하기도 했지요."

최근 그를 사로잡은 스포츠는 러닝이다. 매일 15킬로미터 이상 뛰며 일반 마라톤의 42.19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울트라마라톤과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트레일 러닝에 도전하려 준비 중이다. 놀라운 점은 그가 2024년에만 해도 무릎 연골 문제로 1킬로미터조차 제대로 뛰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처음에는 달리기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근력운동을 하고 기초 체력을 차근차근 쌓아 꾸준히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한계를 넘다 보니 지금은 100킬로미터 울트라마라톤도 완주하게 되었어요." 전병연 과장은 스포츠를 통해 회복 탄력성이 달라졌다고 꼽았다. "100킬로미터 울트라마라톤을 완주할 때처럼 업무에서도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시 버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겼습니다. 체력이 좋아진 덕분에 마음의 여유도 커졌고, 오직 실력과 노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태도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스스로의 삶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지요." 담담한 미소를 짓는 전 과장에게서 관록이 느껴진다.

그의 도전은 계속된다

준비를 마친 전병연 과장이 카이트를 힘껏 띄우자 거대한 연이 순식간에 하늘 높이 떠올랐다. 바람을 실은 카이트가 팽팽히 부풀고 긴장감이 감돈다. 전 과장이 곧 보드에 몸을 실었다. 기대와 달리 바람의 세기가 충분하지 않아 라이딩 시간은 짧았다. 몇 차례 바람의 흐름을 살핀 그가 재차 라이딩을 시도했다. "카이트서핑은 자연을 상대하는 스포츠라 기다리는 시간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간 아쉬운 표정을 짓다가도 이내 익숙한 듯 웃었다.

"저는 가족에게 운동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 주려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요. 요즘은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중인데, 운동과 마찬가지로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는 매년 새로운 분야 세 가지에 도전하기를 스스로 목표 삼았다. 올해는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초급 자격 취득을 목표로 공부에 매진하는 중이며, 내년에는 무려 군산 철인 3종 경기와 악기 배우기에 도전할 계획이다.

전병연 과장에게는 도전의 끝이 없다. 그리고 꾸준히 하는 과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어 가는 러닝처럼, 그의 삶 역시 꾸준함 위에서 단단해진다. 오늘도 그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자신만의 속도로 묵묵히 나아간다.





음성안내
QR코드

올림픽에서만 보던 펜싱을 직접 피스트에서 마주한다.
검 끝이 오가는 순간마다 긴장감과 몰입감이 현장을 채웠다.
한국환경공단 직원 네 사람이 펜싱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글. 한율 사진. 김경수

펜싱으로 나 자신과 마주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사용하는 펜싱은 지구력과 민첩성, 균형 감각은 물론 집중력과 순발력을 함께 기를 수 있는 운동이다.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순간적으로 전략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신체 능력과 집중력, 순발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본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처 총무부 최은하 주임,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 대기관리부 전홍진 주임, 본사 화학안전지원단 화학물질관리처 POPs배출원조사부 김한 대리, 본사 대기환경사업단 사업장대기처 사업장대기기술부 김병섭 주임이 색다른 체험, 펜싱에 도전했다.

펜싱의 기본기를 배우다

수업에 앞서 참가자들은 가벼운 스트레칭과 워밍업으로 운동을 준비했다. 팔과 다리, 허리 등을 차례로 움직이며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고, 피스트(Piste)라 부르는 경기장 위를 가볍게 뛰면서 몸의 열을 끌어올렸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평소 운동을 즐긴다는 전홍진 주임은 워밍업을 하는 내내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클라이밍, 복싱, 폴댄스, 농구 등 다양한 운동을 해봤지만 펜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올림픽 중계를 보면서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체험해볼 기회가 생겨 기쁩니다.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스포츠라 기대가 큽니다.”

펜싱은 에페(Épée), 플뢰레(Fleuret), 사브르(Sabre) 세 종목 중 오늘 네 사람이 배우게 될 종목은 에페다. 강사의 설명이 이어졌다. “에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모두 유효 타격 부위에 포함되는 종목입니다. 공격 우선권 없이 먼저 상대를 찌르는 것이 관건이지요. 두 선수의 검이 동시에 닿으면 양쪽 모두 득점합니다. 순간적인 거리 조절과 판단력이 승부를 좌우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큰 종목입니다.” 강사는 펜싱의 기본자세부터 검을 든 손의 각도, 허리와 어깨의 균형까지 세심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네 사람은 검을 든 채 서로를 향해 예를 표하는 펜싱의 인사 동작인 살뤼(Salut)도 배웠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곧 자세를 가다듬으며 진지하게 동작을 따라 했다. 낯설지만 색다른 경험에 참가자들은 점점 빠져들었다.



검으로 피스트 위를 가르다

기본 이동 동작을 배우는 시간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전진하는 마르셰(Marche)와 뒤로 물러나는 롱프르(Rompre)를 반복 연습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발이 꼬이거나 균형을 잃는 모습도 보였지만, 강사의 구령에 맞춰 동작을 반복할수록 네 사람은 피스트 위 움직임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강사는 펜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밸런스'를 꼽았다. 빠르게 공격하고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무게 중심을 잃지 않아야 다음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다음은 펜싱의 대표 공격 기술인 런지(Lunge)를 배울 차례다. 먼저 검을 쥔 팔을 상대를 향해 곧게 뻗는 알롱제 르 브라(Allongez le bras) 동작을 취한다. 이후 앞발을 크게 내딛으며 상대를 향해 빠르게 치고 들어간다. 이때 뒷다리와 검을 쥐지 않은 팔은 뒤로 자연스럽게 뻗어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무릎 각도를 약 90도로 유지해야 한다.

네 사람은 검을 든 팔을 곧게 뻗은 채 뒷다리를 강하게 밀어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을 반복했다. 강사는 단순히 팔 힘만 사용하지 않고 하체와 골반, 중심 이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네 사람은 지도에 따라 자세를 가다듬으며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반복 연습이 이어질수록 움직임은 한층 자연스러워졌다. 어느새 모두 얼굴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김한 대리는 예상보다 높은 운동 강도에 놀라움을 드러냈다. "이렇게까지 운동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땀이 정말 많이 나고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계속 살피며 반응해야 해서 체력뿐 아니라 집중력도 많이 필요한 운동이라는 게 느껴져요."

마스크 너머 펼쳐진 멋진 승부

실전에 앞서 펜싱 장비를 착용한다. 두꺼운 펜싱복과 장갑을 착용하자 현장 분위기도 한층 진지해졌다. 강사는 에페 검의 손잡이가 피스톨 그립과 프렌치 그립 두 종류로 나뉜다고 설명하며 각각 특징과 사용감을 직접 체감하도록 안내했다. 네 사람은 두 종류의 검을 번갈아 쥐며 자신에게 맞는 검을 신중하게 골랐다. 이어 득점 판정을 위한 전자 장비를 몸과 검에 연결해 실전 준비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마스크까지 착용하자 피스트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참가자들은 두 명씩 짝을 이뤄 본격적인 경기에 나섰다.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며 거리를 조절하고, 빈틈이 보이는 순간 재빠르게 검을 뻗는 치열한 승부가 이어졌다. 처음에는 어디를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의 움직임을 읽으며 점차 경기에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전홍진 주임은 "경기를 펼친 3분이라는 시간이 짧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길게 느껴졌다"라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김한 대리는 "상대방과 서로 눈치를 보다가 점수를 냈을 때의 짜릿함이 굉장히 재미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 후반에는 상대가 공격에 실패해 뒤로 물러나는 순간 빈틈을 노려 점수를 만들어 내는 장면도 이어져 현장 분위기는 한층 뜨거워졌다. 피스트 곳곳에서는 검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탄성과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펜싱의 가장 큰 매력으로 순간적인 몰입감을 꼽았다. 김병섭 주임은 "처음에는 어디를 찔러야 할지 감이 잘 잡히지 않았는데, 수업 후반에는 상대의 허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며 "상대가 공격에 실패해 뒤로 물러나는 순간 팔 쪽 빈틈을 발견하고 찔렀을 때 큰 쾌감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은하 주임은 "상대를 다치게 할까 봐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막상 해보니 안전장비가 잘 갖춰져 안심이 됐다"라며 "순간적으로 치고 들어갔다 빠지는 움직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사람은 펜싱의 매력에 푹 빠진 듯 보였다. 피스트 위에서 흘린 땀과 긴장감 넘치는 승부는 이들에게 분명 색다른 성취감과 즐거움으로 남았을 테다.

펜싱을 더욱 즐겁게, 펜싱 용어 배우기

프랑스어로 된 펜싱 용어는 다소 낯설다. 하지만 기본 표현 몇 가지만 알아도 펜싱에 훨씬 즐겁게 임할 수 있다.

기본 용어

- **피스트(Piste)** 펜싱 경기가 펼쳐지는 공간
- **살뤼(Salut)** 경기 시작과 끝에 나누는 인사

동작과 공격

- **마르셰(Marche)** 앞으로 전진하는 기본 동작
- **롱프르(Rompre)** 뒤로 물러나는 후퇴 동작
- **팡트(Fente)** 한쪽 다리를 길게 내밀어 공격하는 자세
- **아타크(Attaque)** 상대를 먼저 압박하는 공격 동작
- **콩트르아타크(Contre-attaque)** 상대 공격에 맞서는 역공격
- **데팡시브(Defensive)** 상대 공격을 막아내는 수비 동작
- **투셰(Touche)** 공격이 성공해 득점을 인정받는 상황



음성안내 QR코드

맑은 내일을 흐르게 하는 힘

협력과 열정으로부터 깨끗한 수돗물이 솟는다.
K-eco연구원 강예찬 대리와 평창수도사업소 이원규 대리,
더웨이브톡 남국현 이사를 연결하는 식탁에 동참했다.

글. 남혜림 사진. 오충근



K-eco 상생협력 성과공유제란?

한국환경공단이 환경 분야 중소기업과 함께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거나 품질 향상을 도모해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공유하는 동반 성장 제도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나요?" 질문은 하나지만 답은 수십 가지다. 누군가는 편리한 삶을, 누군가는 안전한 내일을 이야기한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모두 다른 만큼 답 역시 제각각인 게 당연하다. 오늘 식사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 앞에서 비슷한 대답을 꺼내 놓았다. "한국의 기술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출발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K-eco연구원 강예찬 대리, 평창수도사업소 이원규 대리, 더웨이브톡 남국현 이사와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뛰어난 기술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동그란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는다. 메일과 전화로 안부를 묻던 이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를 나눈다. 곧이어 함께 브런치 메뉴를 고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믈렛, 프렌치토스트, 새우 파스타, 연어샐러드와 커피 등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하나둘씩 식탁에 놓인다. 음식이 나오기 전부터 이원규 대리와 남국현 이사의 얼굴이 밝다. 두 사람은 K-eco 상생협력 성과공유제로 2024년부터 연을 이어 온 사이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이런 자리에서 뵈니 새롭습니다." 남국현 이사가 웃음을 띠자 이원규 대리가 고개를 끄덕인다. "주로 테스트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봤으니까요." 아직은 긴장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분위기다. 테스트 현장이 어땠냐는 물음에 남국현 이사가 차분히 회상한다.

처음 더웨이브톡은 배수지에 사용할 탁도 계측기 개발에 매진했다. 규모가 큰 정수장에서 쓰는 지금의 제품과 달랐다. 구슬땀 흘려가며 개발한 제품을 들고 실증 테스트를 하던 날.



완벽하다고 자부하던 기술은 현장의 벽에 부딪혔다. 사무실을 벗어나 실제 현장과 유사한 정수장에 설치한 지 3개월 만에 자신감이 무너졌고, 개발자로서 남국현 이사는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설치 직후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어요. 절망스러웠죠.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해 서울과 평창을 수없이 오갔습니다. 그 과정에 한국환경공단은 늘 함께였어요. 평창수도사업소 김만중 소장님, 이원규 대리님께서 원인을 분석하면서 수십 년 동안 쌓은 수질 관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셨습니다.” 공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으리란 남국현 이사의 말에 진심이 실린다.





이원규 대리가 설명을 보탠다. “인공적으로 만든 환경에서는 모든 수치가 완벽하죠. 갑자기 온도가 변하는 등 변수가 발생할 일이 없으니까요. 테스트 환경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조언했어요. 제가 근무하는 평창 정수장과 비슷한 환경에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매일 출근하자마자 기기를 확인하고 남 이사님과 수치 결과를 공유하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이원규 대리가 스마트폰에 남은 메신저 기록을 보여 준다. 사진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기술 개발에 몰두한 몇 개월의 시간이 고스란하다. 공단이 든든한 페이스메이커 같았다는 남국현 이사의 말뜻을 알겠다.

함께여서 이뤄 낸 성과

커피를 마시던 강예찬 대리가 더웨이브톡이 공단 상생협력 제도 서류를 신청하던 당시가 기억난다고 운을 띄운다. “상생협력 제도 신청 단계부터 승인, 진행, 평가 단계까지를 다루는 업무를 맡은 저도 두 분의 여정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처음 신청 서류, 과제 달성을 위해 노력한 내용들, 완성된 제품 설명 보고서를 전부 읽었지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때가 언제였냐는 질문에 세 사람이 입을 모아 지난 4월을 언급한다. 서울에서 ‘2026년 K-eco 상생협력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한 날이다. “상생협력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많아요. 올해 경진대회 예선만 해도 열일곱 팀이 나섰어요. 그중 본선에 진출한 팀은 다섯 팀이었습니다.” 강예찬 대리의 설명에 이원규 대리와 남국현 이사가 그날을 떠올린다. “대회 결과를 들으러 평창에서 서울로 가면서 ‘5등 하러 가는구나!’ 했습니다. 협업해 만든 결과물에 자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결과가 어떨지 몰라 자만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자 했죠. 대상인 줄 모른 채 어리둥절하다 사실을 알고 나서 기쁨을 담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국 기술로 이룬 결과물의 가치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공단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 꼽고 싶을 정도였어요.” 이원규 대리가 너털웃음을 터트린다. 그의 소감에 남국현 이사가 동의한다. “저도 이원규 대리님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환호를 지르지 못했다면 얼마나 아쉬웠을지요. 아직도 환희에 찬 감정이 잊히질 않네요.” 두 사람이 다시금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본다. 많은 말 대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감정을 전한다.

모두에게 맑고 깨끗한 물이 가닿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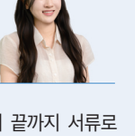
현재 전국의 정수장은 약 480곳이다. 믿고 마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원규 대리가 속한 평창수도사업소는 평창, 영월, 정선, 태백 등 강원도 남부권 시군의 수도시설을 위탁 운영한다. 사업소에서 14년째 일하며 터득한 경험으로부터 나온 조언은 기술 부문에서 멈추지 않았다. “사업적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던 제게 소장님과 대리님은 시장의 생리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2025년 3분기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정수장 2곳, 민간 정수장 및 수영장 등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광역시 단위 실증지원사업에 선정되었고, 대형 제철소 정수장 납품 준비라는 굵직한 성과도 일궈냈습니다.” 더웨이브톡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센서를 통합한 종합 계측기를 개발해 최근 지자체와 테스트베드 설치를 논의 중이다. 개발만 알던 엔지니어가 공단의 도움을 받아 사업 안목까지 갖춘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했으니, 강예찬 대리와 이원규 대리도 뿌듯하지 않을 수 없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이 브런치 가게에서 나와 녹음 가득한 공원을 산책한다. 한국의 수질은 세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뛰어나다. 깨끗한 물을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한다. 그 마음만은 세 사람 모두 같다. 조언을 주고받는 멘토와 멘티에서 결과를 앞두고 함께 성공을 기원하는 친구였다가 이제는 깨끗한 물과 더 나은 환경을 위해 힘쓰는 동지가 되었다. 공단과 기업은 앞으로도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벗이다.

K-eco 상생협력 성과공유제 참여 기업 소개

더웨이브톡

AI 딥러닝을 활용한 수질 탁도, 미생물 센서 전문 기업이다. 자체 하드웨어 특허 기술인 광신호 증폭(CSMS™)과 AI 딥러닝을 결합해 물속 이물질을 정밀하게 감지하는 한국산 탁도 연속 자동 측정기를 개발했다.



Mini Interview



수도통합운영센터
평창수도사업소
이원규 대리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수질 관리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늘 한국 기술로 만든 제품에 갈증이 있었어요. 해외 제품과 견주어도 성능이 우수한 국산 제품이 탄생해 기쁩니다.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에 힘쓰겠습니다.



더웨이브톡
남국현 이사

공공기관은 협업하기 어렵다는 선입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희가 내는 작은 의견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기술 완성에 진심으로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저희에겐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K-eco연구원
연구개발부
강예찬 대리

협력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서류로 함께했지만, 오늘 자리가 마련된 덕에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기쁜 순간에 동참해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 나은 환경이라는 목표를 두고 공기업과 사기업 모두가 노력하고 있단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지구 곳곳을 달리는 K-eco 환경전문가

환경문제는 한 나라만의 과제가 아니다. 프랑스부터 가나 현장까지,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는 파견 근무자 조소현 과장, 김영아 대리와 이야기를 나눴다.

글. 편집실

K-eco 환경전문가 국제파견 프로그램(KIEP)이란?

국제기구에 환경전문가를 파견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 환경 전문가 양성 등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UNESCO
조소현 과장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유네스코 본부 IHP(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에 파견되어 2024년 11월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근무하는 조소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네스코는 유엔의 교육, 과학, 문화 분야에서 활약하는 국제 전문기구입니다. 저는 그중 과학 분야의 물 과학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속한 부서는 지구 곳곳에서 발생하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IHP 부서 단체사진

음성안내 QR코드

현장에서 어떤 업무에 참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해 6월, 유네스코 물 과학국 60주년과 IHP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일주일 동안 열렸어요. 글로벌 물 문제 해결을 목표로 9개국 장관과 국가위원회 등 2000명 이상이 협력 강화의 의지를 다지는 큰 행사였지요.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행사 준비에 매진했어요. 한국환경공단은 주요 협력자인 '워터 스폰서(Water Sponsor)'로 기념식에 참여했습니다. 고위급 토론이나 포럼 참석은 물론, 세션·전시회·리셉션 운영 등 다양한 형태로 행사를 이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후나 물 환경 변화에 취약한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별로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거나 물 과학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근무하기란 쉽지 않겠지요.

파견 근무로 예상치 못하게 해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왔다면 분명 힘들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거주지를 구할 때 프랑스 행정, 부동산을 경험하며 고민이 컸죠. 하지만 기꺼이 함께 해 준 남편과 귀여운 네 살배기 아들 덕분에, 막막하게 여긴 해외 생활이 재미있어요. 국적이 다른 사람과 사귀면서 영어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내려본 유네스코 정원

프랑스어, 일본어, 독일어도 조금씩 듣고 말하게 돼요. 최근에는 소시송, 쇼콜라 등 다양한 프랑스 먹거리의 매력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바게트, 양파 수프, 납작복숭아 같은 타국 음식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피카소처럼 푸른 잔디에 누워 보고 모네처럼 따스한 햇살을 맞다가 헤밍웨이처럼 책을 읽어요. 문득 이런 현실을 깨달을 땐 신기함이 밀려든답니다.

현재 머무는 도시, 파리를 소개해 주세요.

파리는 예쁜 도시예요. 파란 하늘, 초록빛 나무와 상아색 건물이 어우러지죠. 도시가 가진 색감이 감성을 자극해요. 센강 근처에 앉아 따스한 볕 아래 바게트와 크루아상을 뜯는 시간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죠.

프랑스 파리는 2030년까지 화석연료 차량 운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자동차 도로를 줄임과 동시에 디젤차도 축소하고요. 반면 자전거 도로는 계속 확장해요. 공유 자전거 종류와 대여 가능한 개수도 늘리는 추세죠. 제가 근무하는 유네스코는 이러한 분위기에 동참해 사무실 조명을 센서식 LED로 바꾸고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홍보·권장합니다. 현지인은 환경, 특히 도시 곳곳의 공원을 사랑하고 아껴요. 나무와 잔디, 물과 흙, 꽃과 바람을 소중히 생각해요. 그런데 쓰레기 처리법은 다르더라고요. 분리수거 정책이 한국과 달리 관대해서 적응하는 데에 애를 먹은 기억이 납니다.



2025년 물과학국 60주년, IHP 50주년 행사 리셉션

파견 경험을 기반 삼아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면서 국제 업무 협력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해요. 파리에서 듣고, 느끼고, 만나고, 경험한 모든 순간을 잘 간직하려 합니다. 국제 업무에 적절한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해 한국환경공단 국제환경 분야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자녀에게, 또 그다음 세대에게도 지금처럼 아름다운 지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건강한 지구와 물 환경, 자연을 가꾸는 똑똑한 어른을 꿈꿉니다.

UNOSD

김영아 대리


인천 송도국제도시

KOREA
SONGDO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에서 파견 근무 중인 김영아 대리입니다. 2020년 공단에 입사해 어느덧 7년 차네요. UNOSD에 온 지는 1년이 지났습니다. UNOSD는 유엔 경제사회국(UN-DESA) 산하의 프로젝트 오피스입니다. 해외에 소재한 타 기구와는 달리 한국에 있지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인데, 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책 역량 강화 사업에 집중합니다.



가나에서 이뤄진 WMPSS 워크숍



가나 현지 워크숍 현장

GHANA

Q 그곳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시나요?

폐기물정책지원시스템(WMPSS)과 관련한 업무입니다. 각국의 폐기물 관리 및 자원순환 정책 수준을 스스로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국가별 강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지원 플랫폼입니다. 저는 기존 버전의 플랫폼을 업데이트하는 시점에 투입돼 새로운 시스템을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하며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파견 후 진행한 첫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 폐기물 및 순환경제 벤치마킹 스터디 투어입니다. 가나, 마다가스카르, 코모로, 모로코, 아프리카 4개국의 대표단을 초청해 수도권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고, 한국 폐기물 관리 정책과 제도 등을 각국 대표단에 소개하는 워크숍이었죠. 서아프리카 14개국을 대상으로 가나에서 개최한 폐기물 관리 워크숍도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시스템 운영 안정화, 매뉴얼 제작도 겸하고 있습니다.

Q 최근 업무에서 관계가 깊은 나라를 소개해 주세요.

가나는 교류 빈도가 높은 주요 협력 국가입니다. WMPSS를 사용하는 서아프리카국가의 허브 역할도 맡죠. 가나는 세계 최대 중고 의류 수입국 중 하나로, 국민 대부분의 생계가 중고 의류 시장과 직결됩니다. 수입하는 의류 약 40퍼센트가 이미 사용 불가능한 상태로 유입돼 폐기물 상당량이 비공식 매립지로 버려지거나 소각되고, 일부는 하천과 해안으로 흘러가는 등 재활용, 폐기물 문제에 직면한 상태예요. 특히 수도 아크라에 있는 칸타만토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고 의류 시장 중 하나인데, 작년 1월 큰 화재가 발생해 가나 의류 폐기물 문제와 열악한 인프라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가나 정부는 2024년 UNOSD에 의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정책 자문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 왔습니다.

Q 가나에 방문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워크숍 마지막 날 현지 폐기물처리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현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이나 공항 주변 지역은 인프라가 비교적 갖추어져 폐기물 수거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였지만,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 처리시설로 이동하면 환경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신호등 없는 넓은 비포장도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어난 흙먼지… 같은 나라임에도 폐기물 관리 여건과 생활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이날 국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했습니다.

Q 국외 파견을 고민하는 분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나요?

국제기구 파견 근무지만 기관이 한국에 위치해 타 국제기구 파견 선배님들처럼 생활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은 아니어서 비교적 수월하게 업무에 적응했습니다. 국제 업무나 해외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은 한번 도전할 만한 뜻깊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 자체가 큰 배움이란 사실을 깨닫거든요. 공단을 대표해 근무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함께할 거예요.


가나 비포장도로

맑으면 햇빛으로, 비 오면 빗방울로…
‘하이브리드’ 태양광의 미래

흐린 날에도 발전이 가능한 태양광 기술 개발 소식이 들려온다.
신재생 에너지 선두 주자로 당당히 설 하이브리드 태양광 기술을 조명한다.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글. 강찬수(에너지경제신문 기후환경전문기자)



❶ 수직 양면형 패널을 바탕으로 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cemienergy)

❷ 도로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례 (자료. Energy Trend)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달구고, 살갗을 파고드는 여름. 과거에는 에어컨 가동으로 전력 수요가 폭증해 긴장하기 일쑤였지만 최근에는 걱정이 덜하다.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덕분이다. 날이 더워지는 만큼 발전량이 늘어나 ‘전력 수급 비상’이란 말이 언론에 등장하는 일도 줄었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태양광 발전은 날씨와 장소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은 날에는 전기 생산이 불가능하고, 도심에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 한계를 딛고 날씨에 상관없이 전기를 생산하고, 도심 빌딩과 고속도로를 발전소로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바로 하이브리드 태양전지다.

전천후 하이브리드 태양광 기술의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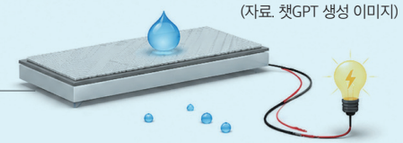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 산하 세비야 재료과학연구소 연구팀은 지난 3월 하이브리드 태양전지 관련 신기술을 에너지 및 나노 기술 분야 과학 저널 <나노 에너지(Nano Energy)>에 발표했다. 이 전지는 초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위에 물방울 기반 마찰전기를 활용하는 나노발전기를 결합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패널 표면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마찰과 정전기 현상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다. 또한, 페로브스카이트 전지는 실리콘과 달리 구름에 산란된 약한 빛(확산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을 유지해 흐린 날에도 발전이 가능하다. 홍콩시립대 연구팀은 적은 양의 물로 패널 표면의 먼지를 99.9퍼센트 제거하는 ‘액체 방울 몹’ 기술을 개발해 지난 4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에 발표했다. 이 기술은 패널 표면에 충돌한 액체 방울이 퍼졌다가 다시 수축할 때 발생하는 표면 장력과 유체 역학적 힘으로 패널 위의 먼지와 오염물질을 한곳에 모아들여 제거하는 기술이다. 모래 폭풍이 잦은 사막이나 황사나 미세먼지 오염 문제가 있는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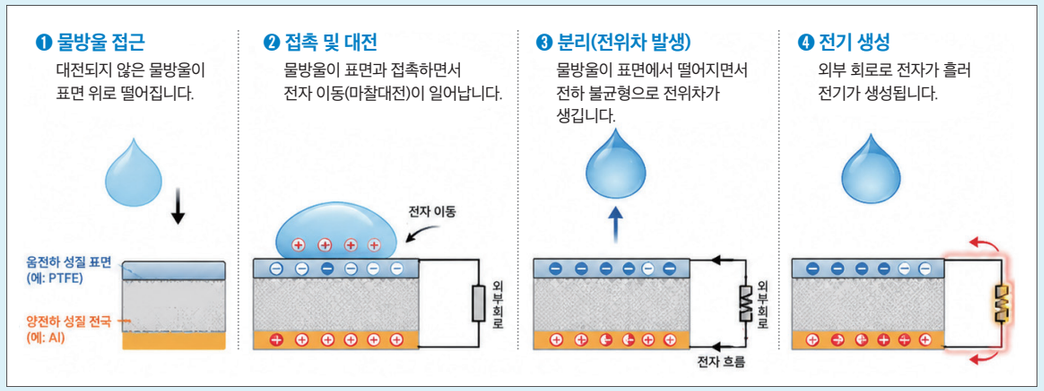
미래의 태양광 산업은 산을 깎아 부지를 만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가 숨 쉬는 모든 일상 공간을 발전소로 재정의한다. 빌딩 자체가 발전소가 되는 건물 파사드 일체형 태양광(FIPV)이 대표적 예다.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지난 3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Nature Climate Change)>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연간 약 732.5TWh(테라와트시, 1TWh=10억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전 세계 건물 전력 수요의 약 8.1퍼센트를 충당하는 규모다. 국내에서도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재료연구원이 시트지처럼 창문에 부착해 전기를 만들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윈도솔라 필름 기술 실증에 착수했다.

고속도로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 과학원 연구팀은 2024년 학술 저널 <지구 미래(Earth’s Fu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32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도로를 태양광 패널로 덮을 경우 연간 17.85PWh(페타와트시, 1PWh=1조kWh)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 챗GPT 생성 이미지)



물방울 기반 마찰전기 나노발전기(TENG)의 작동원리





❸
건물 외벽
일체형 태양광 패널(FIPV)
이미지
(자료. 챗GPT 생성 이미지)

이는 미국 전체 전력 생산의 4배에 달하는 양이다. 더욱이 비로부터 도로를 보호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식량과 에너지를 동시에 수확하는 '영농형 태양광' 역시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국 셰필드대학 연구팀은 지난해에 학술 저널인 <응용 에너지(Applied Energy)>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태양광 패널 사이에서 밀과 유채를 재배하는 윈윈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수직형 양면 패널로 아침저녁에는 전기를 생산하고, 한낮에는 농작물이 햇빛을 충분히 받아 성장한다. 전남 영암군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패널 아래에서 벼농사를 지었을 때 전기 판매 수익이 더해져 전체 매출이 기존보다 8.4배로 늘었다.

재생 에너지 보급에 '올인' 해야 하는 4가지 이유

태양광 발전 확대는 단순히 환경 보호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 걸린 전략적 선택이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4가지다. 첫째는 에너지 안보 확립이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수입하는 화석연료보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재생 에너지가 훨씬 안전한 안보 자산임이 입증됐다. 두 번째는 기후 위기 돌파다. 한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퍼센트에서 61퍼센트가량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생 에너지를 급격히 확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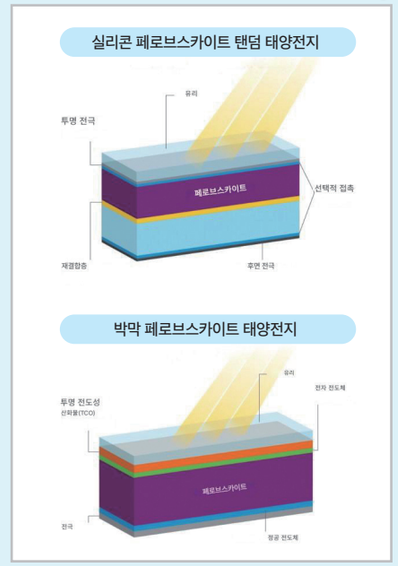
❹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단면 구조
(자료. 미국 에너지부)

❺
제조 중인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❻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사진. 위키피디아)

세 번째는 산업 경쟁력 확보다. 중국이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의 90퍼센트 이상을 장악한 상황에서 한국은 초고효율인 탠덤 셀 기술을 앞세워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한다. 탠덤 셀은 두 개 이상의 층을 쌓아 올려 서로 다른 파장의 태양광을 흡수함으로써 발전 효율을 극대화한 차세대 태양전지를 말한다. 정부는 2028년 탠덤 모듈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해 9월 연구개발 기획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네 번째는 지방 소멸 방지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다. 전남 신안군은 2021년부터 누적 300억 원의 태양광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연금' 모델을 활용해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기적을 맞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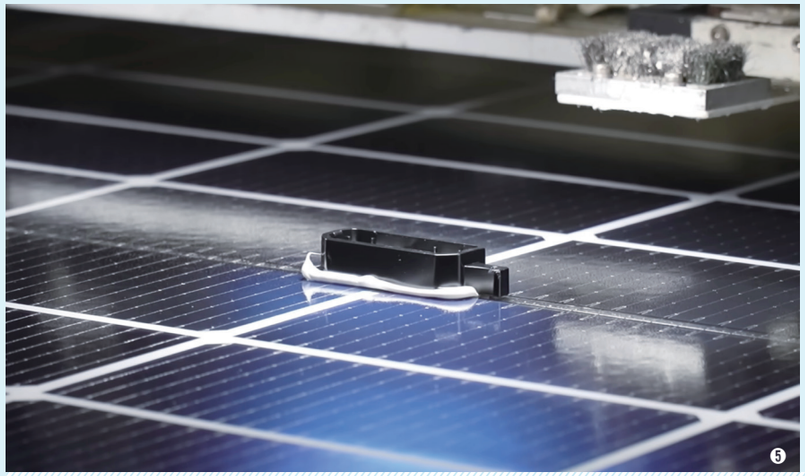
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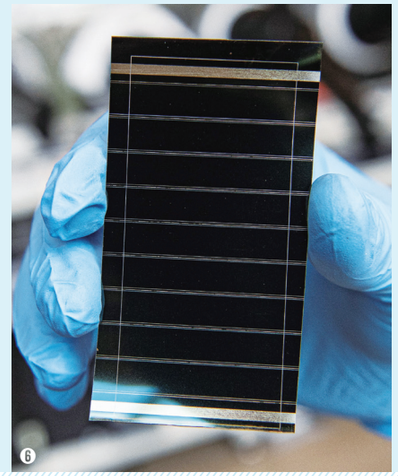


태양광으로 여는 미래

혁신 기술의 이면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자원 수급 문제가 뒤따른다. 2022년에 출간한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 연구팀이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태양광 설치를 위해 무려 5억 톤 이상의 알루미늄이 필요하다. 해당 수치는 전 세계 알루미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점유해 가격 상승과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 문제를 야기한다. 폐자원 재활용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2억 5000만 톤의 태양광 폐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활용 기술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태양광은 이제 단순히 환경을 지키는 수단을 넘어 국가의 경제와 안보, 그리고 지역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다. 동시에 태양광 발전이야말로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쟁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야 하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다. 쏟아지는 햇살을 에너지로 바꾸어 태양광으로 맞이할 '스마트한'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미래의 우리는 한층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음성안내 QR코드



안전하고 즐겁게
여름 바다를 누비는 법

거울처럼 고요하다가도 격랑이 밀려와 모든 걸 휩쓸고 가는 바다.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자리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서
우리 인생을 닮은 바다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운다.

글. 강은주 사진. 오충근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46

- 매주 월~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매월 넷째 주 월요일 휴관)
- 09:00~18:00
- 수조 체험, 안전 체험 각 5000원
- 체험 예약 www.ggbada.co.kr/ggmsec

무수한 섬과 유려한 해안선을 품은 남해, 시원스러운 파도가 밀려오는 깊고 푸른 동해, 넉넉한 갯벌과 타는 듯한 낙조를 자랑하는 서해. 한반도 삼면의 세 바다는 우리 삶의 무대이자 정다운 놀이터다. 날씨·계절·물때에 따라 변화무쌍한 바다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곳이 있으니, 경기도 안산 대부도의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다. 지하 1층 해양 생존 체험관부터 지상 3층 응급처치실에 이르는 공간에서 가상의 해양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 대응하는 법을 익힌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바다와 뱃길과 해수욕장에 둘러싸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실전형 체험 공간이라 할 만하다. 서울 도심에서 남서쪽으로 한 시간 이십 분쯤 달리면 서해를 마주한 시흥 오이도항이 나타나고, 여기서 다시 12킬로미터가량 이어진 시화방조제를 건너 안산 대부도에 다다른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 건물은 섬 입구인 옛 방아머리 선착장 옆에 올라섰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해양 구조 현장을 맞닥뜨린다. 바다 한복판처럼 꾸민 벽면에 실제 구명정과 모형 구조 헬기, 드론을 설치해 실감 나는 재난 상황을 연출한다. 바닷가 생활 안전 수칙, 해양 안전 기술을 망라한 전시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1층에서는 바다가 지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조망하는 전시가 펼쳐진다. 좁고 유속이 빠른 남해, 조수간만의 차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서해, 수심이 깊고 해안 절벽이 아찔한 동해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은 물론 해파리, 상어, 파란고리문어, 바다뱀 등 해양 동물을 만났을 때 행동 요령과 응급 처치법을 공부한다. 다양한 종류의 구명 장비를 살피고,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안내 표지 IMO 심벌도 익힌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알차게 관람하는 TIP



편안한 운동화와 활동복 차림으로 방문하기

기울어진 배를 탈출하거나 무거운 소화기를 들어 불을 끄는 등 움직임이 큰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므로 간편한 옷차림이 필수다.

해양 안전 어벤저스 친구들과 인사하기

구조대 '동동', 정보 레이더 '띠띠', 응급 처치 요정 '삐뽀', 등대처럼 바다를 수호하는 '뿌뿌'. 해양 안전 어벤저스 캐릭터 친구들이 체험 교육을 한층 즐겁게 한다.

온라인으로 예습과 복습하기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웹사이트 '지식(www.gseek.kr)'에 접속해 '생존 수영'을 검색하면 해양 안전 어벤저스 친구들과 함께 생존 수영을 배울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대형 선박 사고를 표시한 지도도 볼 수 있다. 전시실 한 편엔 2014년 침몰한 세월호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는데,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를 기억하며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우리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으로 2021년 건립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의 기획 취지를 곱씹는다.





실전, 운항 체험부터 비상 상황 체험까지

이제는 몸을 던져 사고 상황을 해결하는 2층 안전 체험장으로 간다. 2층의 모든 체험 공간은 조타실, 갑판, 선실 등을 촬영 세트장처럼 재현해 몰입감을 더한다. 넓은 스크린으로 평택항을 주시하면서 선장·조타수·항해사·전탐사 등 선원 역할을 맡아 운항을 체험하고, 해양 안전을 지키는 무인 로봇에 대한 4D 실감 영상과 VR 안전 콘텐츠를 감상했다면 비로소 준비 운동을 마친 셈이다. 본격적으로 사고가 벌어지는 선박 비상 상황 체험에 돌입할 차례다.

첫 번째 미션은 구명조끼와 안전 장비를 갖춘 채 최대 30도까지 기울어진 배 모형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버티는 임무다. 무사히 나왔다고 끝이 아니다. 스크린 위 갑판에서 불이 나는데, 이때 구명정을 띄워 승객들을 대피시키는 게 두 번째 미션이다. 구명정 사용법을 손에 익혀야 이 단계를 통과한다. 세 번째 미션은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벗어나기. 한 손으로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선박 벽을 두들기며 비좁은 선실 복도를 지난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세는 몸을 둥글게 웅크린 채 오리걸음으로 이동해야 한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과 함께하는 만들기 체험



구명환 소재로 만드는 미니 구명조끼 열쇠고리, 드로백 밧줄로 완성하는 열쇠고리, 커피 찌꺼기로 빚는 친환경 커피박 탈취제, 스칸디아모스로 꾸미는 마이크로 바다정원까지. 손을 놀리는 동안 해양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자연스레 깨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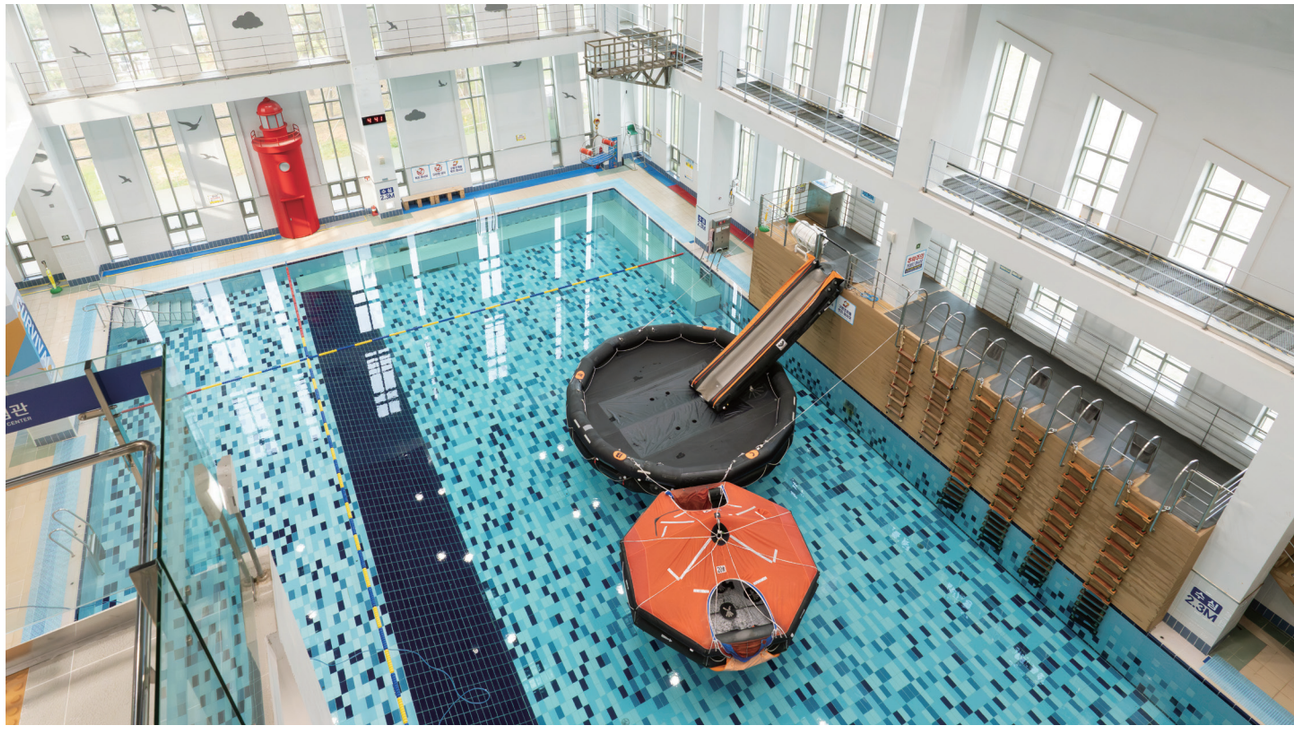


기울기가 급해서 미끄러지기 십상이고, 연기가 자욱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 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조금씩 기어 나간다. 체험일 뿐임에도 실제 상황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정신이 아득해진다. 다행히 응급 처치 실습장에서 이루어지는 심폐소생술 수업이 마지막 관문이다.

생존을 위한 최종 관문, 수조 체험

선박을 탈출했으니 물에서 헤엄쳐 나올 차례다. 지하 1층은 비상 탈출 체험과 이안류 체험이 이루어지는 수조 공간이다. 대형 선박 갑판의 높이에 맞추어 설치한 강하식 탑승 장치(슬라이드)와 비상 탈출용 사다리를 이용해 구명 뗏목까지 이동하고, 조난 신호를 보내 안전하게 탈출하는 법을 몸으로 학습한다. 이안류, 즉 거꾸로 흐르는 파도에 대처하기 위해 생존 수영의 기본자세인 누워뜨기도 체험한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이안류에 맞서 누워뜨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 바다 한복판에 표류했다면 해변 기준 45도 방향으로 이안류를 피해 헤엄쳐 나와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배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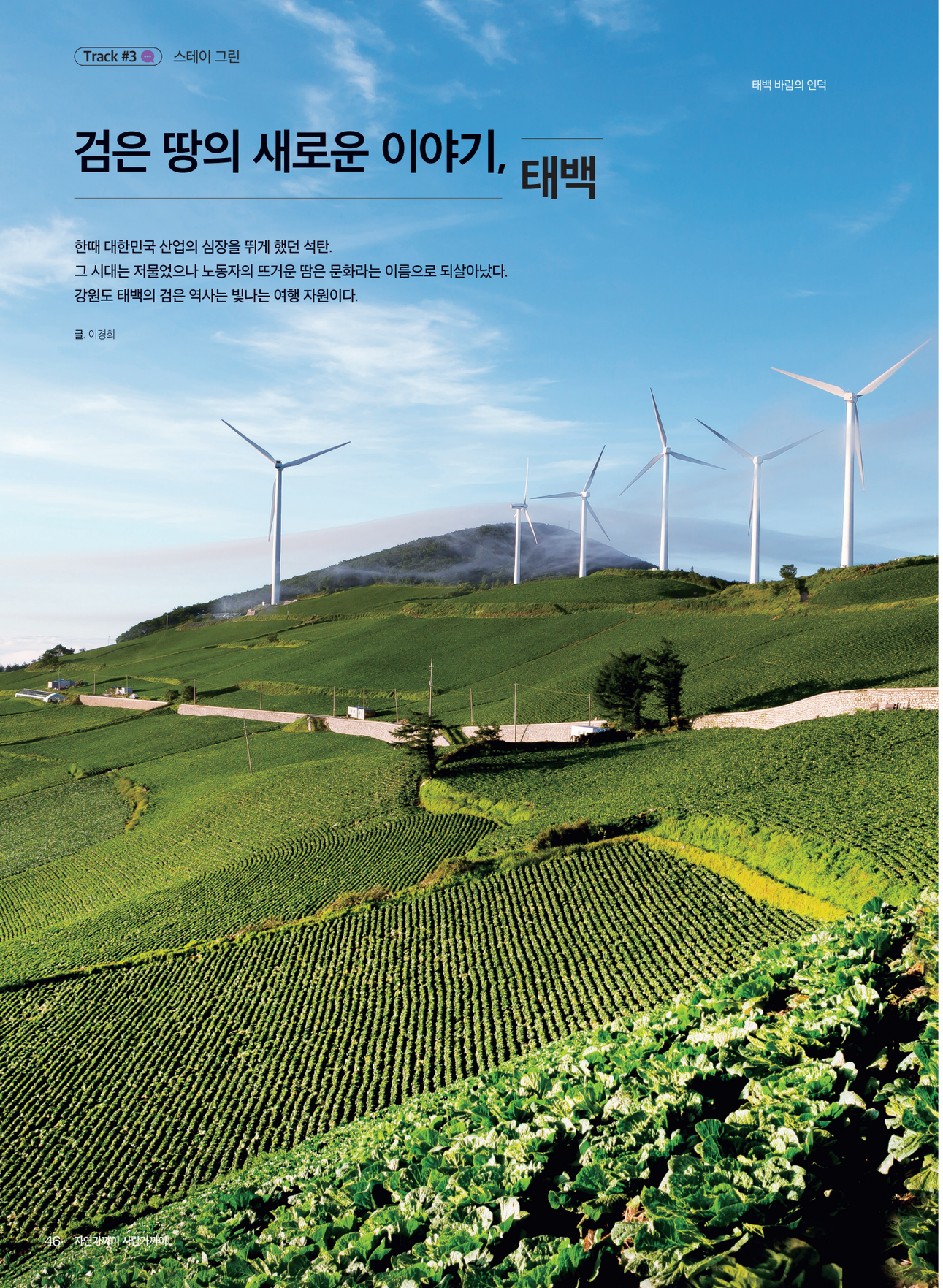
몸은 기억한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결정적 순간에 우리를 구할 무기, 경험을 선사한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서 해양 사고는 잠재적, 현실적 위험 요소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를 지키는 생존 기술 습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올여름 바다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이에게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권한다.



검은 땅의 새로운 이야기, 태백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을 뛰게 했던 석탄.
그 시대는 저물었으나 노동자의 뜨거운 땀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다.
강원도 태백의 검은 역사는 빛나는 여행 자원이다.

글. 이경희



강원도 태백. 해발 약 900미터에 자리한 고원 도시. 한여름에도 선선한 바람이 감도는 이곳은 한때 온 나라의 불을 밝히던 곳이었다. 대한민국이 산업화라는 가파른 언덕을 오르던 1960년~1980년대, 작은 도시는 한국 에너지의 중심이었다. 당시 석탄은 연료 그 이상의 의미였다. '검은 황금'은 가정의 난방을 책임지고,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기차를 달리게 했다. 석탄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하루가 곧바로 멈추는 시대였다. 태백은 돈을 벌기 위해 몰려든 광부로 거리가 넘쳤고, 매일 새벽 갱도 입구에는 헤드램프를 켠 사람이 긴 행렬로 늘어서는 광경이 펼쳐졌다. 탄광촌은 살아 있었다. 식당과 거리가 불야성을 이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골목을 가득 채웠다. 태백은 한때 그토록 뜨거운 도시였다.

꺼진 불을 다시 밝히다

이런 태백에 1980년대 말 변화가 찾아왔다.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탄광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석탄의 자리를 대신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났다. 인구 12만 명을 자랑하던 도시는 빠르게 쇠퇴했다. 빈집이 늘었고, 밤이 되어도 간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탄광도시의 번영은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다. 태백은 주저앉지 않았다. 탄광이 남긴 산업 유산을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하는 조용하고 담대한 시도가 이어졌다. 이른바 자원순환이다. 과거에 에너지를 뽑아내던 땅이 이번에는 이야기를 자아낸다. 갱도와 기계, 광부의 유산과 생활상이 박물관으로, 전시관으로, 여행지로 다시 태어났다. 도시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강원도 특유의 선선한 공기가 느껴진다. 해발 900미터 안팎의 고원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는 한여름에도 밤이면 긴소매 옷을 찾게 될 만큼 서늘하다.

탄광도시 시절의 기억을 가장 선명하게 만나는 곳이 바로 태백석탄박물관이다. 박물관에 들어서면 검은 작업복과 탄광 장비가 관람객을 맞는다. 누군가에게는 낡은 산업 유산처럼 보이겠지만, 도시가 품은 이야기를 아는 자에게는 한국 근현대사의 치열한 생존 기록으로 다가온다. 실제 탄광 갱도를 재현한 공간은 몸을 낮게 숙여야 겨우 지나갈 수 있다. 퀴퀴하고 축축한 공기가 뒤섞인 좁은 통로를 걸으며, 당시 노동이 얼마나 고단했을지 자연스럽게 체감한다. 광차가 지나가는 소리와 발파음 덕분에 더욱 실감이 난다. 태백은 쇠퇴한 산업의 흔적을 감추지 않는다. 오히려 기억하고 기록한다. 석탄이 더 이상 주요 에너지가 아닐지라도 그 시간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도시의 문화 자산이라는 또 다른 에너지가 되었다.

음성안내 QR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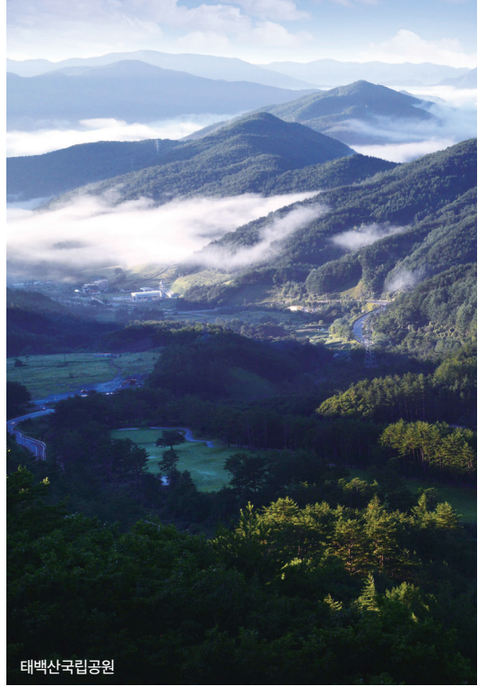
태백석탄박물관

여행을 더욱 즐겁게, 태백 여행 TIP

여름에도 얇은 겉옷 필수
고원지대 특성상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 유의할 것.. 긴소매 옷을 챙겨 온도 차이에 대비한다.

광산·동굴은 미끄럼 주의
태백석탄박물관 갱도 체험 구간, 용연동굴은 바닥이 습해 미끄럽다. 편한 운동화 착용을 권한다.

태백산 등반은 오전 시간 추천
일교차로 오후에는 등산로에 종종 안개가 낀다. 맑은 풍경을 보려면 오전 산행이 유리하다.


태백산국립공원

땅속 깊은 곳에서 발견한 태곳적 시간

태백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하러 조금 더 깊은 곳으로 향한다. 용연동굴은 태백의 자연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동굴로 들어서는 순간, 피부가 먼저 변화를 알아차린다. 바깥이 한여름이어도 동굴 안은 서늘하다 못해 춥다. 긴 세월 동안 물이 바위를 깎아 조각한 공간에 자연의 시간이 흐른다. 동굴 내부에 종유석과 석순, 석주가 끝없이 이어진다.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수백, 수천 년을 지나 지금의 형태를 만들었다. 인간의 산업이 수십 년 만에 도시를 바꾸었다면, 자연은 수만 년에 걸쳐 천천히 풍경을 완성했다. 한쪽에서는 인간이 땅속 깊이 들어가 석탄을 캐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연이 오랜 시간 스스로 동굴을 조성했다. 같은 '지하'이지만 하나는 생존의 공간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연의 예술 작품이다. 그래서 태백 여행은 묘하게 감정의 결이 깊다. 탄광의 기억에서 인간의 노동과 생존을 떠올리고, 산과 동굴에서는 자연의 거대한 시간을 마주하게 된다. 그 모든 시간이 한 도시 안에 함께 존재한다.

한때 사람들은 태백을 '탄광도시'라고만 불렀다. 오늘날 태백은 여러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과거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의미를 덧입혔으며, 석탄 대신 시대의 기억이 빛나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태백은 산업이 남긴 흔적 아래 여전히 사람의 풍경을 그려 가는 도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만나는 여름

태백의 또 다른 얼굴은 자연이다. 산업 도시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태백은 한국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는 고원 풍경을 품은 도시다. 특히 '민족의 영산' 태백산국립공원은 태백 여행 필수 코스다. 예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이 남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이 산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왔다. 해발 1500미터가 넘는 웅장한 산세에도, 의외로 등산길은 완만한 편이라 남녀노소 부담 없이 오를 만하다. 도시가 폭염으로 숨 막힐 때 시원한 바람이 흐르는 산은 매력을 더한다.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어느 순간 서늘한 바람이 등을 스쳐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춘다. 숲길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에어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시원하다.

산에 들어서서야 태백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해하게 된다. 단순히 산업의 기억만 품은 도시가 아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버텨왔는지 알려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척박한 고원지대인 태백에 사람들은 탄광 이전에도 농사를 짓고 나물을 캐어 살길을 개척했다. 태백산 정상 부근에서는 구름이 발아래 펼쳐지는 순간순간과 마주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의 빠른 속도와 경쟁으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느낌이다.


용연동굴


철암탄광역사촌

태백 여행 추천 명소 3

1 태백석탄박물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석탄 전문 박물관이다.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에 8개 전시실과 체험갱도관을 운영한다. 미니 연탄 만들기 등 프로그램도 체험 가능하다.

강원도 태백시 천제단길 195

지도로 확인하기



2 용연동굴

해발 920미터 고지의 자연 석회암 동굴이다. 광장 네 개와 순환형 수평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굴 내부에 긴다리장님좀먼지벌레 등 진귀한 생물들이 서식한다.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283-29

지도로 확인하기



3 태백산국립공원

2016년에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목 군락과 야생화 능선이 절경으로 꼽히며 열목어 서식지인 백천계곡 등 다채로운 생태 경관을 자랑한다.

강원도 태백시 번영로 59 (국립공원사무소)

지도로 확인하기











모두가 건강해지는 식사,
플렉시테리언 식단

식탁에 올리는 재료를 바꾸어 환경보호에 동참한다.
유연한 채식자의 식단, 플렉시테리언 식단법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건강과 환경을 향한 관심이 날로 높아진다. 건강을 위해, 체형 관리가 필요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등 저마다 뜻을 품고 채식에 도전하는 이가 늘었다. 비건 메뉴를 갖춘 음식점이나 카페도 종종 보인다. 이제 채식은 일부 사람의 식습관이 아닌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존중받는다. 하지만 채식을 꾸준한 식습관으로 이어 가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회식이나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때, 외식 메뉴를 선택할 때 완벽한 채식 식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서다. 음식 재료와 영양 균형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기도 한다.

채식을 실천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망설이는 이에게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식단을 권한다. 플렉시테리언은 영단어 '유연한(Flexible)'과 '채식주의자(Vegetarian)'를 합친 말로, 평상시에는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사를 하되 필요에 따라 육류와 생선을 유연하게 곁들이는 식습관을 의미한다. 완전한 채식에 도전하려다 실패하고 포기하는 대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육류 섭취를 줄여 나가는 데에 의의를 둔다. 채식 지향 식단은 당연히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농업·축산 부문을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라 본다. 특히 쇠고기 중심 식단은 식물성 식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알려졌다. 소를 사육할 때 발생하는 메탄, 방목지 확보를 위한 삼림 훼손 등 축산업 전반이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육류 소비만 조금 줄여도 탄소배출 감소와 자원 절약에 도움을 준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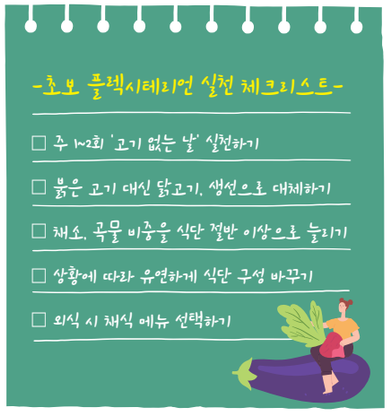
채식에도 단계가 있다고? 채식주의 단계

비건(Vegan)
육류·생선·달걀·유제품 등
동물성 식품을 모두 제한하는 단계

락토 베지테리언(Lacto vegetarian)
육류와 생선을 먹지 않지만
우유·치즈 같은 유제품은 섭취

락토오보 베지테리언(Lacto-Ovo vegetarian)
육류와 생선을 제외하고
달걀과 유제품까지 허용하는 대중적인 채식 단계

플렉시테리언(Flexitarian)
평상시에는 채식 위주로 식사하되,
필요에 따라 육류와 생선을 유연하게 곁들이는 방식



플렉시테리언 식단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두부, 콩, 병아리콩, 귀리, 견과류, 버섯 같은 식물성 단백질 식품을 식탁에 올리고, 육류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곁들이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된다. 현미밥과 채소 반찬이 중심인 한식 식단도 훌륭한 플렉시테리언 식사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채식을 목표로 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하루 한 끼라도 바꾸는 선택이 건강은 물론 지구 환경에 변화를 만든다.

식단 내 육류 비중 축소는 온실가스 배출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다. 나와 지구를 위한 채식은 결코 무리한 도전이 아니다. 밥상에 오르는 재료를 하나씩 바꾸어 나감으로써 일상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신체는 물론 지구까지 모두 건강해지는 식습관을 갖춘 사람, 플렉시테리언으로 거듭날 때다.

도전! 플렉시테리언 식단



병아리콩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대표 식재료다. 샐러드나 후무스, 볶음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버섯
쫄깃한 식감 덕에 고기를 대체할 식재료로 사랑받는다. 단백질도 풍부하게 함유했다. 버섯을 간단하게 볶아 덮밥이나 볼고기로 즐기길 권한다.



귀리
포만감이 높아 체중 관리 식재료로 인기가 많다. 오트밀, 그래놀라 형태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단 것이 장점. 동물성 우유 대체재로도 쓰인다.



두부
일반적인 판 두부, 순두부, 두부면 등 형태가 다양한 데다 구하기 쉬워 샐러드, 덮밥 재료 등으로 추천한다. 맛이 담백해 다른 재료와 잘 어우러진다.

작품으로 만나는 환경 이야기

지구냉각화를 다룬 SF 영화가 화제다. 우주를 무대로 하는 영화, 분리배출 '꿀팁'을 알려 주는 ASMR 영상, 2026 우수환경도서에 선정된 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모았다.

글. 편집실

VIDEO



감독: 필 로드, 크리스 밀러
출연: 라이언 고슬링



<프로젝트 헤일메리>

중학교 과학 교사 그레이스는 아득한 우주 한가운데에서 깨어난다. 기억을 잃어 혼란스러운 상황, 낯선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 로키와 만나 예상치 못한 우정을 쌓는다. 알고 보니 그는 죽어가는 태양 때문에 냉각화될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할 마지막 희망이었다. 인류 멸망을 막기 위해 우주로 향한 과학자와 로키의 여정이 펼쳐진다. 앤디 위어의 소설이 원작으로, 기후 재난과 과학기술, 생명의 공존에 대한 메시지를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지구를 지키는 ASMR

칫솔, 과자 봉지, 포장재, 배달 용기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쓰레기지만, 분리배출 방법이 아리송할 때가 많다. 헷갈리기 쉬운 분리배출 방법을 ASMR 콘텐츠로 쉽고 재미있게 알려 준다. 비우기, 헹구기, 분리하기, 섞지 않기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분리배출 습관도 달라진다.

유튜브에서 확인하기



동실동싫: 천방지축 얼렁뚱땅 한국환경공단 탐방기

코끼리 인형이 한국환경공단에 나타났다. 깜찍한 코끼리 인형과 함께 공단 곳곳을 탐방한다. 한국환경공단 이홍수 차장을 만나 동물실험의 필요성, 실험 절차, 실험 중 엄격히 지켜야 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준 등 한국환경공단에서 이뤄지는 동물실험의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인간은 물론 모든 생명을 존중하려는 공단의 노력이 엿보인다.

유튜브에서 확인하기

BOOK



케이트 마블 지음
송섬별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나는 미쳐가고 있는 기후과학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출신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이 과학과 정책의 언어로 기후 변화의 현주소를 짚는다.
28년 차 환경 정책 전문가인 저자는 환경 재난의 속도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오염물질이라며 우리는 현재 탄소 중립 이행으로는 부족한 대오염의 시대에 와 있다고 설명한다. 일상의 언어로 환경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화학 오염을 파헤치고, 녹색 혁신을 향한 해결책을 제안한다.



미겔 델리베스 데 카스트로 지음
남진희 옮김
두시의나무 펴냄

<고마운 존재들의 생태학>

지구에는 다양한 생명이 산다. 인간이 하찮게 여기거나, 징그러워하거나, 아예 관심도 두지 않는 생명을 향해 생물학자가 찬사를 보낸다. 흔하디흔한 잡초, 지렁이부터 균류, 미생물의 세계까지 차례로 살펴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알려 준다. 플랑크톤이 생산하는 산소, 굴이 정화한 바닷물 등 같은 자연을 공유하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선정한 2026 우수환경도서다.



개나이 마키 지음
정영희 옮김
상추쌈 펴냄

<농업 고수>

농업은 환경과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다. 흙과 작물, 사람을 이해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고민해 온 전문가 도호 마사노리의 농법을 담았다. 일본 농협 기술 지도원으로 28년 동안 일한 그는 '수직 재배'의 베테랑이다. 작물을 층층이 쌓아 올려 재배하는 첨단 농업 방식으로,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해 효율이 높다.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고도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필요한 지식을 폭넓게 다룬다.



공우석 지음
드레북스 펴냄

<지구의 질문>

폭염과 집중호우, 파괴되는 생태계까지 환경 문제는 이미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인류는 왜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하고 소비할까? 기후 위기와 생태계 파괴, 자원 문제 등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환경 이슈를 살핀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지구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밝히고 공존의 의미를 다시 묻는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차분히 고민하게 한다.

K-eco 와글와글

한국환경공단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

한국환경공단 조직문화 리:디자인 끝장토론 개최









공단을 구성하는 이들의 의견을 귀담아 올바른 사내 문화를 만든다.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소재 회의실에서 공단 간부와 노동이사, 부서장, 청년세대 대표 블루(BLUE)팀 등이 참여한 '조직문화 리디자인(Re:Design) 끝장토론'이 열렸다. 토론 주제는 바로 조직문화 비전과 2026년 실천과제. 명사 초청 특강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조직문화'가 끝난 후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다. 온라인 익명 게시판과 본부별 간담회에서 사전에 수렴된 의견을 공유한 뒤, 3개 그룹을 구성해 그룹별 토론을 진행했다. 그룹별로 선정한 사안은 다시 전체 토론의 주제로 상정되었다. 마치 콘클라베를 방불케 하는 깊은 논의 끝에 실시간 익명 투표로 다수가 공감한 조직문화 지향점과 실천과제가 도출됐다. 효율 중심 회의 운영, 관행적 업무 혁파, 균형 있는 업무 배분 등 3대 핵심 7대 과제는 한국환경공단 조직문화의 기둥 역할을 할 예정이다. 존중과 효율이 공존하는 업무 문화로 공단은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커피로 전하는 공감, ‘간부가 서빙! 위클리 카페’









사내 카페가 따뜻한 공감과 소통의 장으로 변신했다. 지난 4월 20일, 한국환경공단 사내 카페 지구별에서 ‘간부가 서빙! 위클리 카페(Weekly Cafe)’ 행사가 열렸다. 간부와 직원 간 조직문화 활성화를 취지로 열린 노사 공동 소통 프로젝트는 한국환경공단 전 부서를 대상으로 5일 동안 지속됐다. 행사 기간에는 임원, 간부가 직접 음료 주문을 받고 서빙하는 광경이 자연스러웠다. 반응은 뜨거웠다. 간부와 임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애쓴 공단원에게 음료를 건네며 감사, 존중 등 평상시 표현하지 못했던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전했기 때문이다. 행사 기간에 맞춰 출시한 신메뉴 ‘에어리카노’도 관심을 모으는 데에 한몫했다. 경영진을 포함한 각 간부들이 직접 방문해 소통의 장이 열리기도 했다. 행사 기간 중 카페 이용 직원은 300여 명, 영수증 응모 이벤트 참여자는 총 75명을 기록하는 등 프로젝트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존중의 마음은 커피향처럼 공단 곳곳에 남았다.





환경전문심사원, ‘우리 부서 캐릭터 도감 챌린지’ 실시

동료의 특징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로 바꾼다.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이 지난해 6월 3개월에 걸쳐 ‘우리 부서 캐릭터 도감’ 챌린지를 진행했다. 각 부서원이 동료의 얼굴을 그리고, 그림은 챗GPT를 활용해 일관된 화풍으로 정제해 구성원의 업무 스타일, MBTI, 대표 컬러 등 업무 내·외적 특성을 넣어 캐릭터 카드를 제작했다. 완성된 도감 내 무작위로 캐릭터 1인을 선정, 누구인지 맞히는 문제를 내는 ‘나를 찾아볼래?’ 퀴즈 이벤트도 진행해 시상하는 등 작고 소소한 챌린지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다졌다.





전북환경본부, ‘무지개 일터 만들기’ 캠페인 진행

가치를 담은 무지개가 일터를 밝힌다. 지난해 7월, 전북환경본부가 7주간 색깔별로 가치를 정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무지개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일곱 가지 무지개 색깔에 각각 열정·에너지, 따뜻함·창의성, 신뢰·책임 등 주제를 부여해 출근길 아침 인사 캠페인, 칭찬 메시지 포스트잇 작성, 출퇴근 시간대 일일 DJ 방송 운영 등을 추진했다. 이는 2024년 평가 항목 중 점수가 가장 낮았던 조직문화 부문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릴레이형 캠페인을 전개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켰다.

2026 SUMMER Vol. 65

SPECIAL EVENT

의견을 보내 주세요!

정답 및 독자 의견 보내는 방법

① 웹진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웹진에 접속해 '독자 참여' 코너에 정답과 의견을 입력한다.

② 엽서

사보 뒤쪽 엽서를 뜯어 내용을 적은 뒤 우체통에 넣는다.



웹진 (www.kecowebzine.kr)과 QR 코드로 빠르고 편리하게 소식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난 호 엽서 정답자

꼰대(7526)	코난과포비(1111)
서울댁(8798)	리본트리(9630)
송○영(8272)	이○정(2208)
이○현(0301)	이○임(7498)

※ 이벤트 당첨자의 개인 정보는 최소화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EVENT 01 초성 이모티콘 퀴즈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2026년 여름호를 읽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❶

💨🟢⚖️0

ㄷ ㅅ ㅈ ㄹ

힌트 1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흡수·제거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같게 만들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힌트 2
한국환경공단의 비전

퀴즈 ❷

😊🤝💬🗣️

ㅅ ㄹ

힌트 1
한국환경공단 핵심 가치 중 하나로, 공단이 가장 기본으로 삼는 가치.

힌트 2
굳게 믿고 의지함.

※ 18p K-eco 사용설명서에 정답이 있습니다.

EVENT 02 독자 의견

여름호에 대한 의견이나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알려 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봄호의 독자 의견을 소개합니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친환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름호 이벤트는 2가지입니다.**

봄날의 신록 뒤에 하천이 녹조로 아파하고 있었군요. 이를 차분하게 풀이해 주어 깊이 몰입해 읽었습니다. 때 이른 녹조가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자연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이○은(4349)**

모든 내용이 유익한 가운데 '트렌드 라운지'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못했는데, 이렇게 가벼운 운동이 있다니요.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가능한 슬로 조깅,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야겠습니다.

봉제필통(4022)

아이스크림 막대로 미니 부채 만들기

더운 여름,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남은 나무 막대로
휴대하기 좋은 미니 부채를 만들어 봅시다.

제작 방법
영상으로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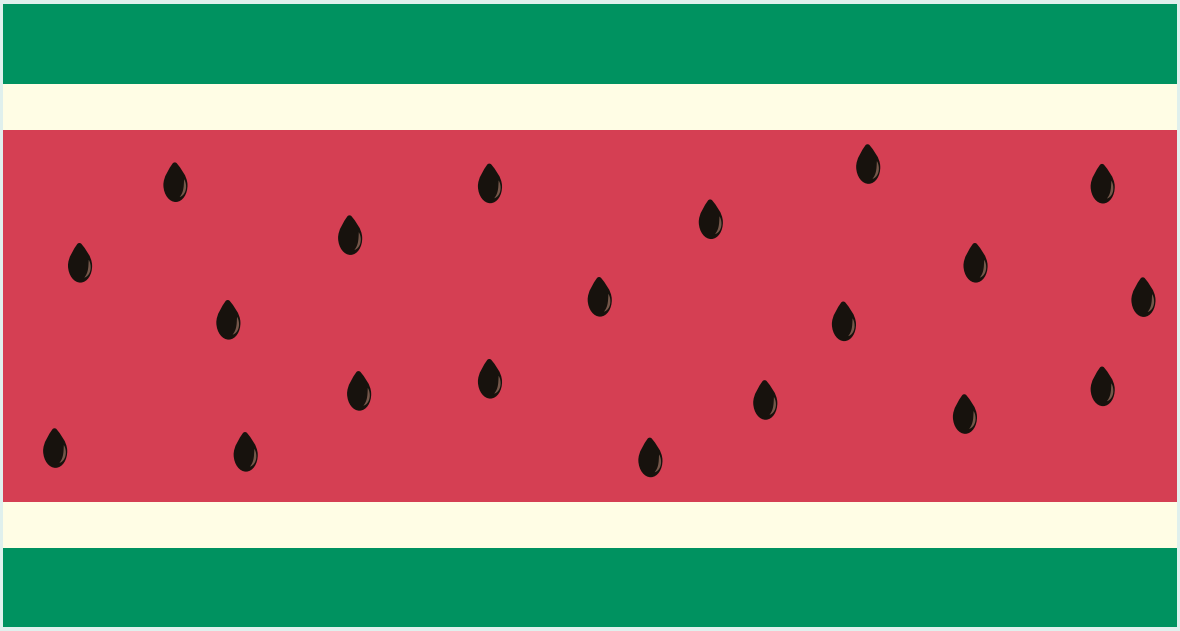
준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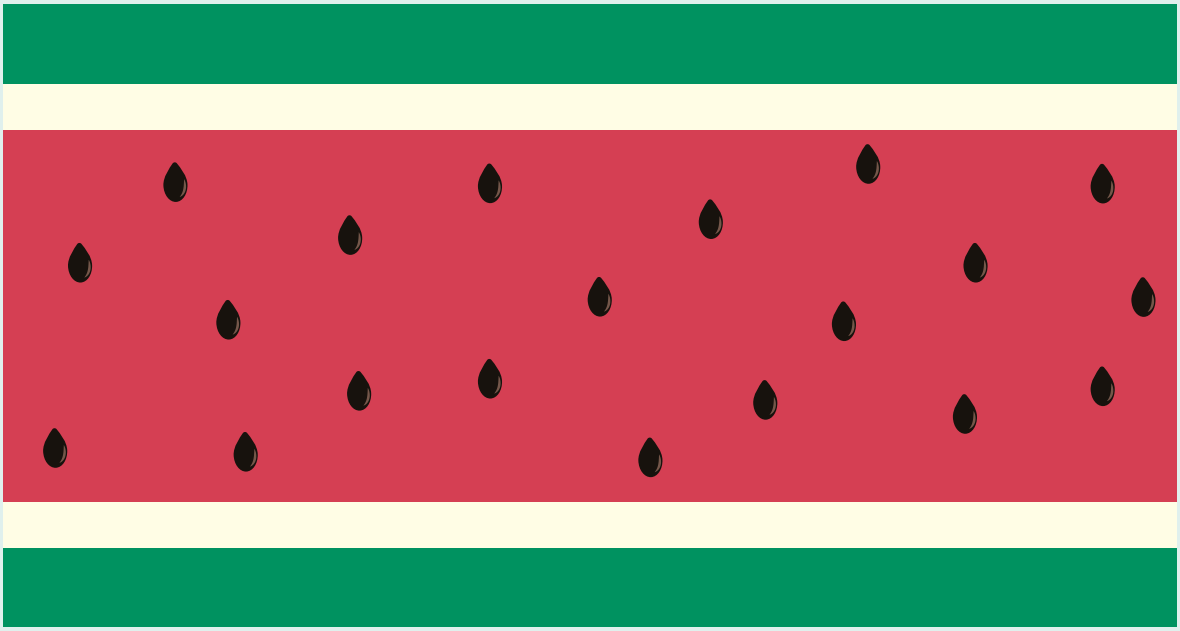
가위, 색칠 도구, 양면테이프, 아이스크림 막대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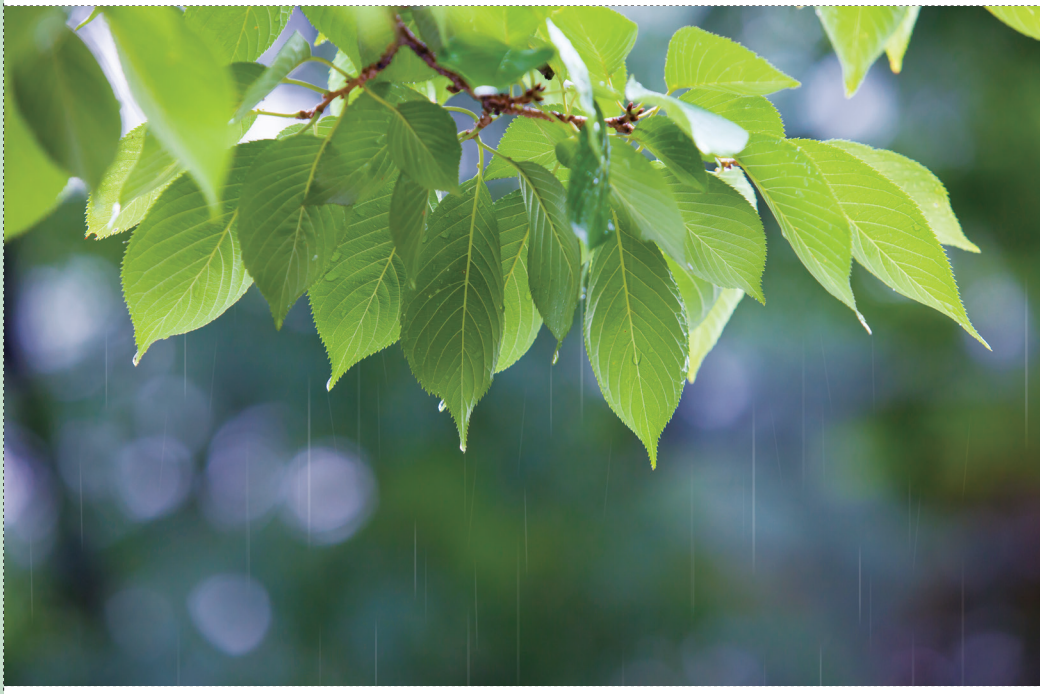
만드는 방법

❶ 푸루 캐릭터를 자유롭게 색칠하고,
모든 도안을 가위로 오려요.
❷ 도안을 지그재그로 접고 반으로 다시 접어요.
❸ 접은 도안을 양면테이프로 서로 이어 붙여 주세요.
❹ 도안 끝자락에 막대를 붙이고,
푸루 캐릭터를 붙여요.









우 편 엽 서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 06. 10.~

서인천 우체국
승인 40091호

보내는 사람

주소

주소변경, 신규구독 및 구독중지를 희망할 경우, 작성해 주십시오.

☐ 주소변경(전, 후 기재) ☐ 신규구독 ☐ 구독중지

※ 주소 : (변경 전)

(변경 후)

※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독자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발송 시 수취인명을 '구독자님'으로 일괄 처리해 발송합니다.
또한, 경품 당첨 시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반송되오니
다시 한번 주소 확인 후 발송 부탁드립니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오류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홍보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담당자 앞

2	2	6	8	9

우리가 함께 만드는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1. 이번 호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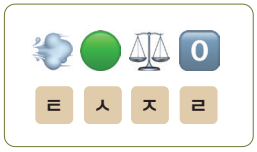
2.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3.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4.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것이나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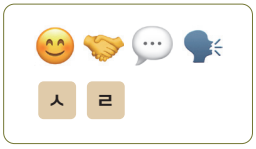
이모지 퀴즈 정답

퀴즈 ❶



퀴즈 ❶ 정답 _____

퀴즈 ❷



퀴즈 ❷ 정답 _____

※ 18p K-eco 사용설명서에 정답이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가 없으면 당첨이 어려우니, 정보를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또는 닉네임) _____

연락처

* 이메일 _____

* 전화번호 _____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상품 증정 및 발송을 위해 성함, 이메일, 전화번호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당첨이 어렵습니다.
* 이모지 퀴즈의 정답을 표기하여 엽서를 보내 주세요. 엽서 마감은 **2026년 8월 20일까지**입니다.
*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는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엽서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K-eco 웹진 바로가기

"당신의 시선으로 내일의 깨끗한 지구를 만듭니다."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2026. 6. 8.(월) ~ 8. 3.(월) 18시

공모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환경사랑공모전.kr

※ 부문별 1인 3점 이내

시상내역

총 상금 **6,000만원** 총 **76점**

문 의

공모전 운영사무국

T. 070-4610-6440 / **E.** keco@all-f.com

공모부문

사 진

자연과의 공존, 우리 환경의 소중함,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담은 사진

에코디자인

폐자원을 활용한 생활용품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환경보전의 메시지가 담긴 창작 이미지

※ 일반부, 학생부(초등부/중·고등부), AI로 구분하여 접수

주최 한국환경공단 후원 기후에너지환경부